

韓半島 出土 (靑銅)鼎의 性格

鄭 仁 盛*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資料分析 |
| 2. 선행연구 검토 | 1) 靑銅鼎의 분류와 변천과정 |
| 3. 한반도 출토 靑銅鼎 | 2) 중국자료와의 비교검토 |
| 4. 중국에서의 靑銅鼎 製作과 變遷 | 6. 한반도 출토 靑銅鼎의 2系譜와 系譜別 先後關係 |
| 1) 殷·周時代의 靑銅鼎 | 1) 移入(中國産) 靑銅鼎 |
| 2) 春秋戰國時代의 靑銅鼎 | 2) 韓國式 靑銅鼎 |
| 3) 前漢代의 靑銅鼎 | 7. 漢代 靑銅鼎의 製作中心地와 한반도로의 이입 |
| 4) 後漢代의 靑銅鼎 | 8. 하대와 양동리 출토 鼎의 性格 |
| 5) 廣州漢墓 出土鼎의 檢討 | 9. 맺음말 |

1. 머리말

한반도에서는 初期鐵器時代 以來로 中國産이라고 알려져 있는 많은 遺物들이 各地에서 出土되고 있다. 이는 이 時期 韓半島와 中國大陸과의 文化 교류관계 규명과 절대연대자료가 부족한 한반도내의 考古學資料에 나이를 부여하여 이들의 편년적 질서를 확립하는 유효한 Cross-dating 의 자료로 이용되어지고 있다.¹⁾ 그러나 韓半島에서 出土된 이들 靑銅製容器들이 編年上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는 異見이 없으나 이를 이용하는 方法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研究者들이 銘文이나 公반유물을 통해 絕對年代가 알려진 中國의 遺物과 동일한 韓半島 出土品을 비교하여 絕對年代를 推論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大部分의 경우 中國遺物과는 많은 時期差가 나고 있다. 연구자 자신의 相對編年觀과 中國産 遺物의 편년이 서로 많은 시기차가 나면 이는 傳世로 일축하며, 年代가 거의 일치할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絕對的인 증거로 이용한다²⁾. 즉 中國製 遺物을 통한 交叉年代를 추정

* 대구 교육대학교 박물관

1) 朝陽洞 5號 38號 出土 漢鏡은 이들 遺構의 絕對年代를 추론하는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다호리 1호분에서도 前漢鏡인 星雲文鏡이 출토되어 절대연대 추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良東里에서 채집된 'TLV'鏡과 各種 漢鏡은 初期 木槨墓의 등장시기를 확인하는 標識的인 資料로 이용된다.

이 외 韓半島의 여러 곳에서 中國貨幣들이 發見되고 있어 中國과의 交叉年代推定을 통한 絕對年代 부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경우 一貫성이 없고 방법론상으로도 많은 문제를 內包한 채 研究者의 재지계 遺構·遺物의 相對年代觀에 따라 작위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絶對年代를 가진 遺物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또한 개개 遺物에 대한 철저한 分析을 통하지 않고 형태상의 유사함만으로 막연히 中國産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考古學的 論議의 底邊에서 確保되어야 되는 遺物 分析에 대한 科學성이 결여되고 있다.

近年에 所謂 中國産 遺物이라고 이해되어지는 靑銅鼎³⁾이 下岱나 양동등지의 土壤木槨墓에서 잇달아 出土되었다. 따라서 이를 이들 遺構의 絶對年代를 파악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資料가 될 수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이들 遺物을 中國 漢代의 遺物로 파악하고 共半 遺構·遺物을 解釋하려고 할때 많은 時期差가 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⁴⁾ 게다가 時期的으로 더욱 後代의 遺構인 天馬塚이나 집안등지의 積石塚에서 出土되는 遺物마저도 대부분 漢式의 鼎으로 이해되고 있어 엄청난 시기차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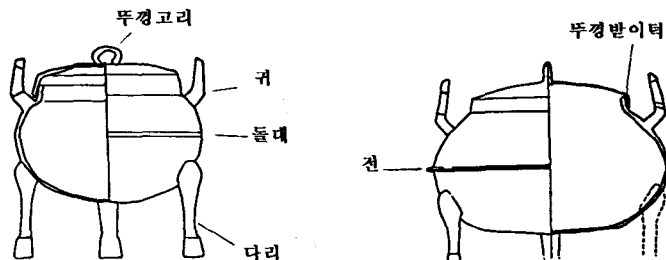
本 考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韓半島에서 출토된 외래계 靑銅製 遺物 中에서도 鼎을 主 分析對象으로 하여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韓半島와 집안등지에서 확인되는 靑銅鼎 資料를 대개 확인해보아 이것이 形態的으로 어떠한 特性이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韓半島 出土 靑銅鼎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靑銅鼎에 있어 母文化로서 中國을 인식하고, 中國에서 出土되어 報告된 靑銅鼎 中에서 確認이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이를 분류해 보고 시기별 변천과정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 崔秉鉉, 1991. 「2. 絶對年代」, 『新羅古墳 研究』(一志社). 최병현은 各種 靑銅容器의 系譜를 따져 積石木槨墓의 上限을 추론하려하지만, 그 系譜가 漢이라고 이야기할 뿐 絶對연대추론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다.

3) 鼎이란 字形에서 느껴지듯이 3개의 다리와 2개의 귀가 달린 容器로서 대개 靑銅으로 된 것이 많으나 陶製品도 있다. 주로 中國古代文明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神物이다.



삼도 1. 청동정의 형태와 각부 명칭

4) 임효택, 1994. 「양동리 발굴조사 약보고」(동의대학교 박물관)

안재호, 1992. 「하대발굴조사약보고」, 『제1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발표 및 토론요지』(영남고고학회)

셋째 중국內 出土 靑銅鼎의 형식과 이들의 시대별 변천과정을 토대로 한반도 출토 靑銅鼎을 이와 비교분석하여 그 성격과 계보관계를 명확히 하고자한다.

네째 系譜가 確認되면 韓半島에서 확인되는 靑銅鼎의 특징과 이것들의 編年的 先後關係를 검토해 본다.

다섯째 앞에서 살펴본 사실을 토대로 近年에 嶺南地方의 土壙木槨墓에서 출토된 청동정의 성격을 간단하게 알아본다.

그러나 靑銅鼎의 매납의미나 傳世의 社會的 意味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동정 외의 다양한 외래계 유물의 검토를 통해서 다시한번 다루기로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그 간의 靑銅鼎에 대한 研究는, 天馬塚이나 西北地方의 遺蹟에서 이러한 容器가 出土되면 서 認識은 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具體的인 研究成果는 없었다. 그러다가 近年에 下岱와 양동등지에서 소위 漢式이라고 할 수 있는 靑銅鼎이 發見되면서 注目을 끌게 되었다. 靑銅鼎은 양동이나 대성동에서 발견된 銅複등과 함께 이 時期 土壙木槨墓의 系譜나 文化交流關係를 짐작할 수 있는 좋은 資料로 認識되고 있다.

안재호는 下岱출토의 靑銅鼎을 中國出土 靑銅鼎의 一部와 比較하여 손잡이의 形態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前漢 前期에 주로 流行하는 形式이라고 판단하고 있다.⁵⁾ 그러나 이 유물이 출토된 下岱23호 木槨墓는 공반유물이 대개 3세기 以後로 編年되는 것들이어서 時期差를 문제로 남기고 있다.

신용민은 역시 下岱 出土의 靑銅鼎을 前漢代의 遺物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는 西北地方木槨墓에서 出土되는 遺物과 同一한 脈絡에서 이해되어 질수 있는 遺物로서, 中國遺物이 확실하나 이의 시간적인 Gap이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양동리, 대성동 등에서 출토되는 銅鏡, 銅複역시 동일한 脈絡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⁶⁾

최병현은 慶州의 積石木槨墓에서 出土되는 靑銅鼎은 다른 靑銅器와 함께 絶對年代를 추론할 수 있는 決定的인 자료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遺物은 집안동지의 적석총에서 출토되는 靑銅鼎 資料와 同一한 맥락의 자료로 이해하여 이의 直接的인 조형을 樂浪 자료에서 구하고 있으나 역시 시간적인 差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⁷⁾

임효택은 양동출토 靑銅鼎을 설명함에 있어 이를 한대의 遺物로 판단하고 있으며 역시

5) 안재호, 1992. 「울산 하대가지구분의 성격」, 『제1회 영남고고학회 발표및 토론회』(영남고고학회)

6) 신용민, 1992. 「下岱遺蹟出土 鼎에 대해서」, 『제1회 영남고고학회 발표및 토론회』(영남고고학회)

7)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一志社)

長期間의 傳世를 상정하고 있다.⁸⁾

또한 良東에서 출토된 銅鼎에 관해서는 이의 명문해석에 대한 논의도 일부 있었으나 遺物이 아직 保存處理 中이라 정확한 결과는 處理 結果를 기다려야 한다.⁹⁾

이 外 靑銅鼎은 아니나 박보현과¹⁰⁾ 김쾌정에 의해 靑銅樵斗에 대한 研究가 일부 이루어졌는데, 특히 김쾌정은 청동초두가 樂浪의 古土인 평양부근의 木槨墓에서 出土되는 것과 新羅나 高句麗의 積石塚에서 출토되는 것이 있다고 하며 이 중 집안과 慶州의 적석목곽묘에서 출토되는 資料는 高句麗系統일 가능성이 높다는 見解를 제시하고 있다.¹¹⁾ 그러나 이를 高句麗製로 보는 이유가 단지 “다리의 형태가 곧고 높은 것은 高句麗人의 氣象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등의 論理를 펴고 있어 科學的 思考에서 벗어나 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머리말에서도 言及하였듯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靑銅鼎을 中國産¹²⁾이라고 認識하고 있는 데는 異見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大部分의 研究者들이 靑銅鼎과 이들의 공반유구·遺物과의 시기차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樂浪이나 三韓의 옛 땅에서 出土된 것과 新羅, 高句麗 積石木槨墓에서 出土된 靑銅鼎을 同一한 系譜의 遺物로 판단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심각한 연대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前漢代에 製作되어진 靑銅鼎이 韓半島에서 제작되어진 資料들과 同一하다는 판단아래 中國에서의 製作年代인 BC3-1世紀를 韓半島에 그대로 適用할 경우 이러한 年代觀은 西北地方의 경우 郡縣의 設置와 비슷한 編年的 脈絡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지만 南部地方의 土壙墓에서 출토되는 靑銅鼎과는 적게는 400년 많게는 500년 정도의 시기차가 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高句麗 積石塚의 경우 600년, 新羅積石木槨墓의 경우 600-700년 정도의 시기차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지금까지의 研究는 극히 初步的인 단계이며 靑銅鼎 遺物自體에 대한 認識水準도 지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임효택, 1994. 「김해 양동리고분 발굴조사 약보」(동의대학교 박물관)

9) 谷豊信, 1994. 「2.良洞里遺蹟·下岱遺蹟 靑銅製鼎」The second pacific Bas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Achaeology Seminar. (東北亞細亞 考古學研究會)

10) 朴普鉉, 1990. 「樵壺·樵斗副葬古墳의 性格」, 『白山學報』(白山學會)37.

11) 金快正, 1984. 「樵斗에 관한 一考察」,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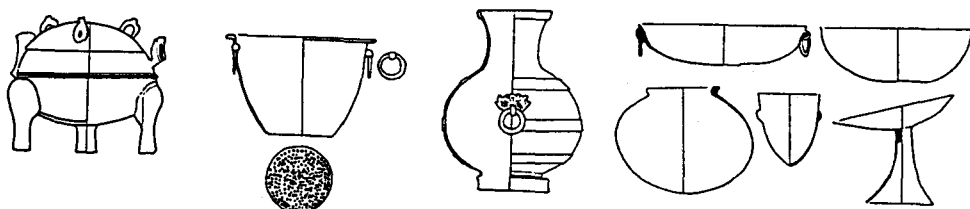
12) 中國産, 中國系 등의 用語에 대한 区分이 필요하다. 中國産이란 중국에서 제작되어진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중국계란 중국물건에서 Motif를 받기는 하였으나 製作은 自國에서 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用語正義한다.

3. 한반도 출토 靑銅鼎

韓半島에서 출토된 靑銅鼎자료를 확인하여 그 개개적 특징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貞栢桐 8號墳 出土遺物¹³⁾

정백동 8호에서는 2점의 靑銅鼎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도면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점이다. 도면으로 관찰되는 靑銅鼎은 뚜껑이 있는 有蓋式의 靑銅鼎으로 文樣은 表現되지 않았다. 胴體의 形態는 타원형으로 바닥은 둥근기미이다. 胴體에는 단면삼각형의 돌대가 形成되어 있으며 가운데가 뚫린 장방형의 귀 2개가 胴體에 對稱되게 붙어있다. 뚜껑에는 3개의 둥근고리가 附着되어 있다. 다리의 形態는 上部가 두툼하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날렵해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동물다리의 形狀을 하고 있다.



삼도 2. 정백동 8호

높이 : 38.4cm 口徑 : 31cm 胴 最大徑 : 40cm

정백동 8號墓는 樂浪木槨墓로 알려진 遺構로서 日帝時代に 調査된 것이다. 공반유물로는 靑銅製 壺를 위시하여,靑銅洗, 고리달린 靑銅시루 등의 漢式漆器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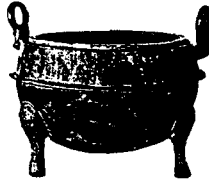
(2) 平南 대동군 토성리 出土遺物¹⁴⁾

뚜껑이 없이 發見된 것으로 胴體는 타원형을 띤다. 胴最大徑에는 水平으로 突出한 전이 부착되어 있다. 귀의 形態는 병따개 모양의 둥근고리이다. 다리의 형태는 상부가 불룩하고 아래로 갈수록 날씬해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동물다리의 형상을 하고 있다. 뚜껑과 같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口緣에 뚜껑받이 턱이 2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有蓋式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3) 사회과학원 고고학 연구소, 1983. 「락랑구역 일대의 고분발굴보고」, 『고고학 자료집』 (사회과학원 출판사) 6.

14) 신용민, 1992. 「앞 글」, (주 6).

토성리는 日帝時代에 調査되었으며 이 遺物도 이때 發掘된 것이다. 공반유물은 명확하지 않다.



삽도 3. 대동군 토성리

(3) 石岩里 9號墓 出土遺物¹⁵⁾

뚜껑이 결실된 채 발견된 것으로 동체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타원형을 띤다. 동최대경이 위치하는 지점, 즉 동체의 1/3지점에 수평으로 돌출한 전이 붙어있다. 귀는 병따개 모양이며 구연의 양쪽에 대칭되게 붙어있다. 다리는 上部가 두껍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가늘어지며 전체적으로 짧은 느낌을 준다.뚜껑은 없으나 뚜껑받이턱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유개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암리 9호묘는 日帝時代에 조사된 것으로 遺構는 土壙木槨墓로 알려져 있다. 다량의 漢式 靑銅器과 공반되어 出土되었는데 고리달린 靑銅製 壺,龍모양이 장식된 銅釜, 薄山爐등이 그것이다.



삽도 4. 석암리 9호

(4) 樂浪 君治址 出土遺物¹⁶⁾



삽도 5. 낙랑군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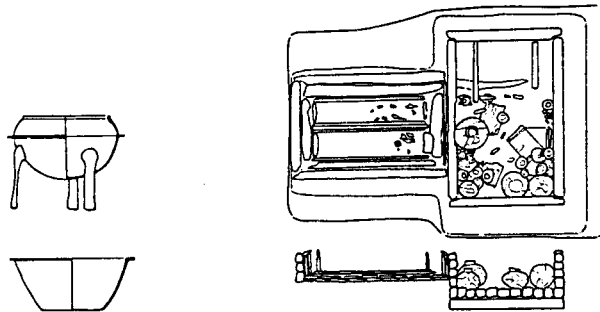
15) 국립중앙박물관, 1986. 「청동기 특별전 도록」

16) 東京大學文學部 考古學研究室, 昭和39年, 『樂浪郡治址』, 東京大學.

樂浪 郡治址에서 發見된 遺物로서 圖面은 없고 寫眞만 확인할 수 있다.

寫眞을 통하여 檢討해본 결과, 鼎은 뚜껑이 없는 채로 출토되었다. 동체의 형태는 左·右로 넓은 타원형이며 胴最大徑은 胴體의 中位에서 약간 위로 치우친 곳에 위치하는데 수평으로 突出되어 있다. 胴體의 口緣에는 뚜껑받이 턱이 마련되어 있다. 胴上位에 對稱되게 붙은 귀는 안으로 약간 內傾하며 병따개의 모양을 하고 있다. 다리는 등 간격으로 3개가 붙어 있는데 斷面 ‘V’ 字의 모양을 띤다. 正面에서 보아 대체적으로 動物狀의 형태이다. 口緣에 뚜껑받이 턱이 확실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아 원래는 뚜껑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공반유물로는 各種 瓦와 靑桐製 국자, 瓦質製 陶鼎등이 있다.

(5) 정오동 1號墳 出土遺物¹⁷⁾



삽도 6. 정오리 1호

정오동 1號에서는 1點의 靑銅鼎이 出土되었다. 圖面을 통해 보았을 때 靑銅鼎의 胴體 형태는 半球形이다. 胴體의 2/3 地點에 胴最大徑이 위치하고 여기에 전이 붙어 있다. 다리의 형태는 동물다리의 형태이나 곧고 긴 편이다. 圖面에는 귀가 표현되지 않았으나 “다리가 3개 붙어있고 2개의 다리가 떨어져 나간 자리가 있다.” 라는 설명으로 보아 귀는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공반된 유물은 靑銅洗와 各種 土器들이 있다. 遺構의 形態는 墓壙을 ‘凹’ 형태로 판 다음 서로 直交하게 木槨을 설치하였다. 木槨內部에는 각각 2개와 1개의 목관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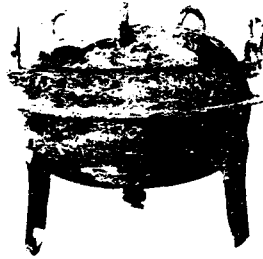
(6) 평양부근 선교리 출토유물¹⁸⁾

정확한 出土정황을 알 수 없는 자료이나 出土地가 평양부근의 선교리로 알려져 있는 遺物이다. 圖面이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진을 통해 보았을때 뚜껑이 덮혀서 완전한 형

17) 사회과학원 고고학 연구소, 1983. 『락랑구역 일대의 고분발굴보고』, 『고고학 자료집』 (사회과학원 출판사)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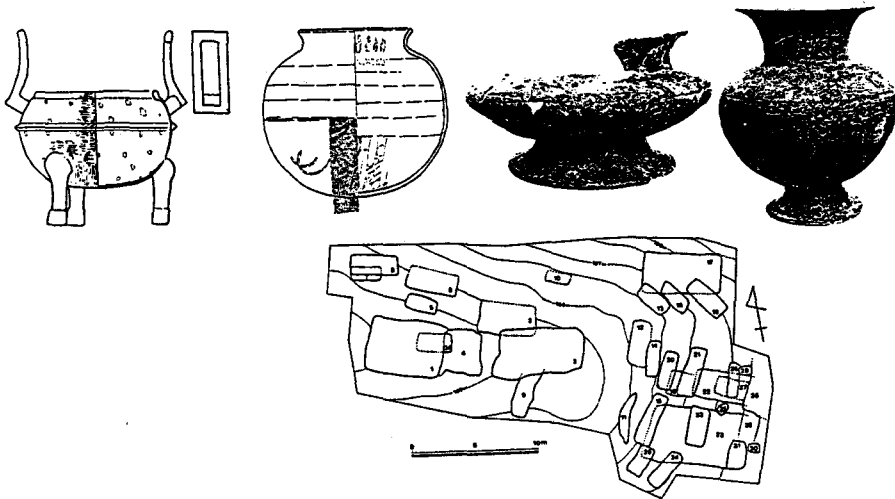
18) 梅原末治·藤田亨策, 『朝鮮 古文化宗鑑』 2(養德社).

태이다. 전체적으로 밑이 약간은 평평하지만 반구형이며 동체의 中上位에 동최대경이 위치한다. 여기에 수평으로 돌출한 전이 附着되어 있다. 귀는 口緣의 바로 아래에 對稱되게 2個가 붙어 있는데 끝이 둥근 형태이다. 뚜껑에는 3개의 고리가 부착되어 있다. 다리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날렵하나 動物狀이다. Scale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크기를 알 수가 없다.



삼도 7. 선교리

(7) 下岱 23號 出土遺物¹⁹⁾



삼도 8. 하대 2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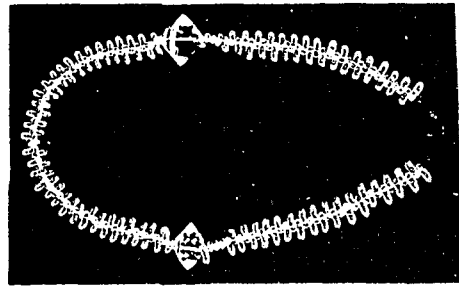
橢圓形의 胴體를 하고 있으나 바닥은 약간 평평하다. 胴 最大徑은 中位에서 약간 上部로 치우쳐 있으며 斷面 三角形의 돌대가 부착되어 있다. 귀는 口緣의 양쪽에 對稱되게 붙어 있다. 귀는 약간 內傾했다가 서서히 外反하고 있다. 귀의 正面形態는 細長方形으로 역시 細長方形의 구멍이 뚫려 있다. 다리는 上部가 두툼고 아래가 잘록한 動物다리모양이나 긴 편이다. 口緣은 2段으로 꺾여 뚜껑받이턱이 形成되어 있다. 胴體에는 많은 鑄物固定痕이 남아 있다.

19) 安在浩, 1992. 「앞 글」, (주 5)

遺物の 크기가 상당히 大形인 점이 注目된다. 遺構는 長方形의 木槨墓로서 주위의 다른 遺構에 비하여 상당히 큰 규모이며 瓦質製 短頸壺와, 爐形土器, 臺付廣口壺와 같은 遺物이 共半되어 출토되었다. 遺物の 주위에는 甬과 소토가 확인되어 의례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土器를 통한 既存의 編年觀에 의해 3世紀 中葉정도로 編年되고 있다.

높이(귀 끝까지) : 50cm 口徑 : 30cm

(8) 金海 良東里 322호 出土遺物²⁰⁾



삼도 9. 양동리 322호

同體의 形態는 半球形으로 胴最大徑은 中上位에 位置한다. 胴體의 中上位에는 1줄의 돌선이 形成되어 있다. 귀는 口緣의 바로 아래에 對稱되게 2개가 붙어 있는데 형태는 바깥으로 거의 水平이 되게 돌출하다가 다시 위로 꺾인다. 귀의 上部는 짧지만 外反한다. 다리는 中下位에 3個가 돌아가면서 붙어 있는데 두툼하고 짧은 形이지만 典型的인 동물다리의 형태를 띠고 있다. 뚜껑받이턱은 2段으로 형성되어 있다. 또한 良東里 靑銅鼎에는 多數의 銘文이 새겨져 있어 주목을 끄는데 확인된 銘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西口官鼎,容一升弁重十七斤七兩七.

이중 西자는 谷字일 가능성이 있다고하여 이를 谷口宮이라는 銘文을 가진 中國의 資料와 비교하려는 논의가 있어 주목된다.²¹⁾ 그러나 임효택은 ‘西’字다음의 ‘口’字가 글자로서의 ‘口’字가 아니라 애매하다는 뜻으로 비워둔다는 의미였다고 한다.

명문의 서체는 漢代의 豫書體이다.²²⁾

20) 林孝澤, 1994. 「앞 글」 (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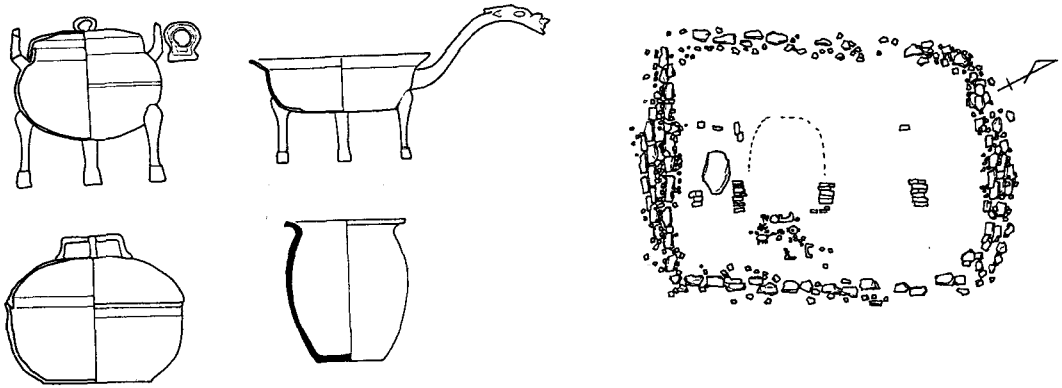
21) 谷豊信, 1994. 「2.良洞里遺蹟·下岱遺蹟 靑銅製鼎」, 『The second pacific Bas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Archaeology Seminar』 (東北亞細亞 考古學硏究會).

22) 林孝澤, 1994. 「後藤直·岡内三眞·谷豊信氏의 코멘트에 대한 解答」, 『The second pacific Bas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Archaeology Seminar』 (東北亞細亞 考古學硏究會).

또한 이 靑銅鼎을 실견한 분으로부터 遺物의 바닥은 매우 얇게 닳아 있으며 땀질한 痕迹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들었으나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遺物은 현재 保存處理中이라 實物을 관찰할 수가 없다.

높이 : 17.5cm 口徑 : 16.1cm

(9) 七省山 96號 出土遺物²³⁾



삼도 10. 칠성산 96호

바닥이 둥근 타원형의 銅鼎이다. 손잡이의 形態는 작지만 圓形이고 뚜껑에도 中央에 둥근 고리가 한개 달려 있다. 뚜껑이 덮혀 있으나 뚜껑받이 턱이 形成되지 않았다. 다리는 가늘고 긴편이며 기본적으로 동물다리의 형태를 하고 있다. 共半遺物로서 晉代의 것으로 판단되는 龍首柄樵斗와 十字形꼭지附 靑銅盒등이 있다. 遺構는 積石塚이며 年代는 4世紀初 정도로 編年되고 있다.

높이(뚜껑포함) : 16cm 口徑 : 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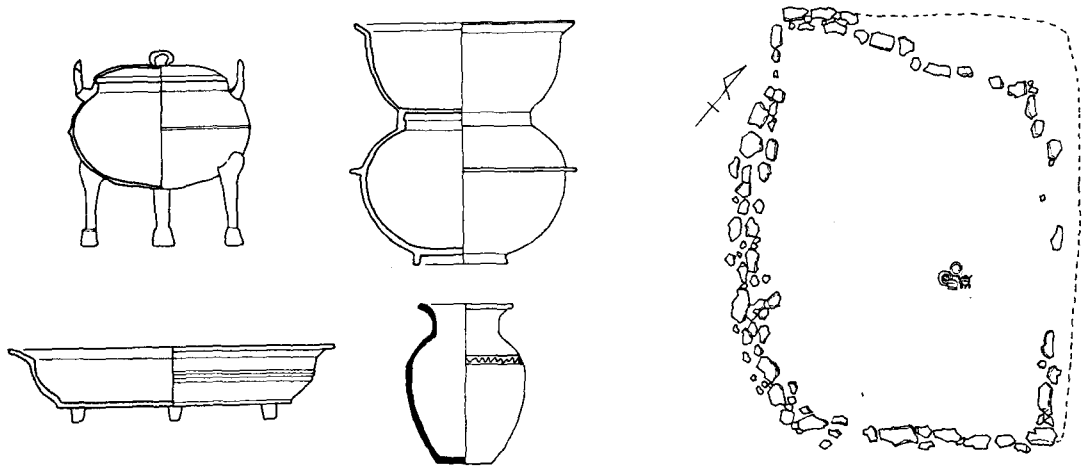
(10) 우산68號出土遺物²⁴⁾

바닥이 둥근 橢圓形의 銅鼎이다. 손잡이는 둥글고 작으며, 뚜껑에도 중앙에 둥근 손잡이가 하나 달려 있다. 胴最大徑은 胴體의 中位에 位置하고 돌대가 부착되어 있다. 다리의 형태는 동물다리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곧고 날렵하다. 따로 뚜껑받이 턱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뚜껑이 덮혀 있다.

높이:17.2cm 口徑:10.8cm

23) 集安縣 文物保管局, 1979. 「集安兩座高句麗積石墓的清里」, 『考古』 1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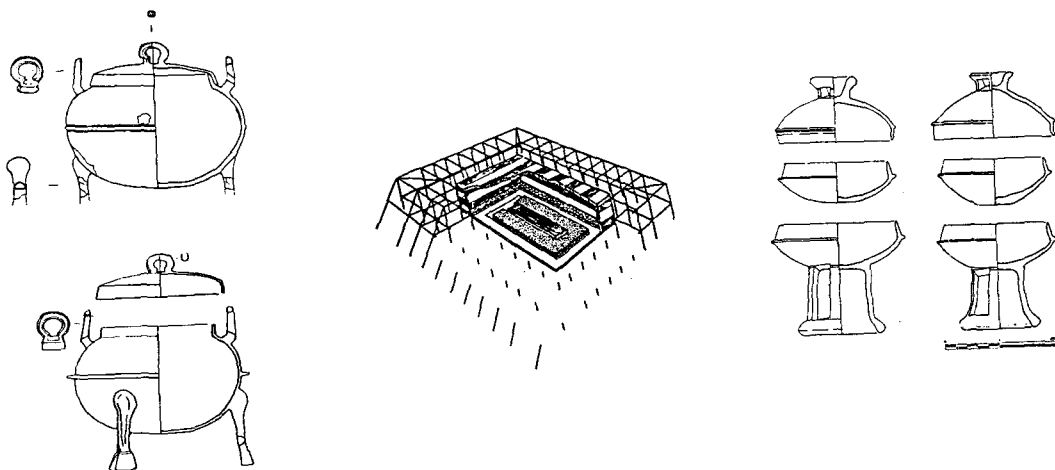
24) 集安縣 文物保管局, 1979. 『앞 책』 (주 23).



삼도 11. 우산 68호

칠성산 96號는 積石塚의 構造이다. 遺構에서는 이 外에도 銅釜와 銅시루set, 銅洗등이 출토되었다. 研究者들에 의해 4世紀初에서 中葉頃으로 辨년되고 있다.

(11) 황남대총 南墳 出土遺物²⁵⁾



삼도 12. 황남대총 남분

황남대총 南墳에서는 3点의 靑銅鼎이 出土되었다.²⁶⁾

25) 文化財 管理局, 文化財 研究所, 1993. 『皇南大塚 南墳 發掘調査 報告書 -圖面·圖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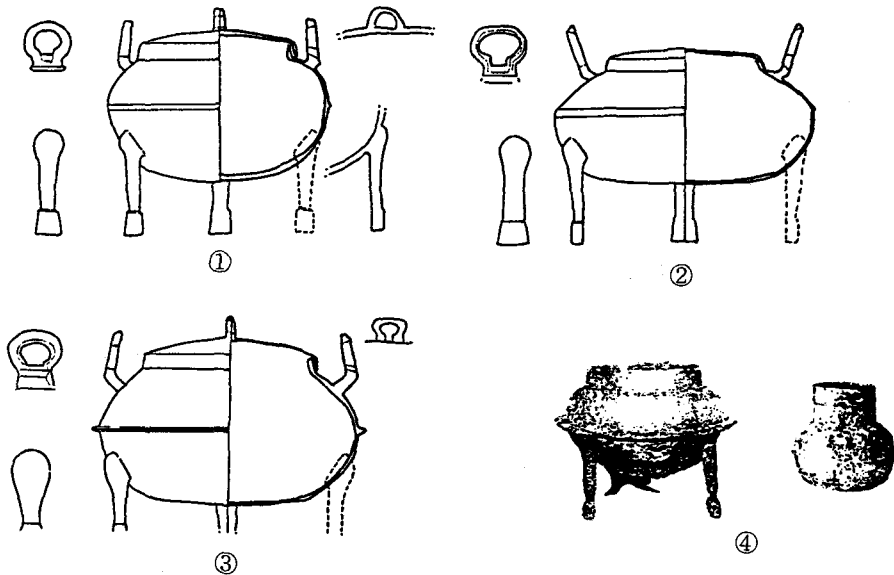
도면①의 靑銅鼎은 編球形의 胴體를 하고 말 말굽형의 다리가 3개 부착되어 있으며 다리의 단면형태는 半圓形이다. 肩部에는 對稱되게 2개의 杓수를 부착시켰는데 모양은 병따개 모양으로 下部가 축약된 형태이다. 뚜껑은 뚜껑받이턱이 형성되지 않고 바로 직립한 구연의 위에 덮혀 있는데 뚜껑의 頂上部에도 병따개 모양의 고리가 달려 있다. 胴最大徑의 部位에는 1cm정도로 突出한 전이 부착되어 있다.

도면②의 鼎은 ①의 鼎과 형태상 거의 유사하다. 胴體는 편구형이며 口緣은 약간 內傾하며 마무리된다. 中央部에 병따개 모양의 고리가 달린 뚜껑이 덮혀 있으며 胴最大徑에는 ①과 달리 突帶가 附着되어 있다. 다리의 형태는 上部가 두툼하고 下部로 내려가면서 가늘어지며 단면형태는 반원형인 것으로 확인되나 中位 以下가 결실되었다. 報告者는 인위적인 파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도면 없이 사진으로 보고된 것은 뚜껑고리가 둥근모양이고 손잡이의 形態는 병따개 모양이다.

(12) 황남대총 北墳 出土遺物²⁷⁾

모두 3점의 靑銅鼎과 1점의 鐵鼎이 출토되었다.

다리의 形態나 손잡이의 形態는 3점이 모두 비슷하나 胴體바닥과 손잡이의 기울기가 각기 다른 特徵을 하고 있다.



삼도 13. 황남대총 복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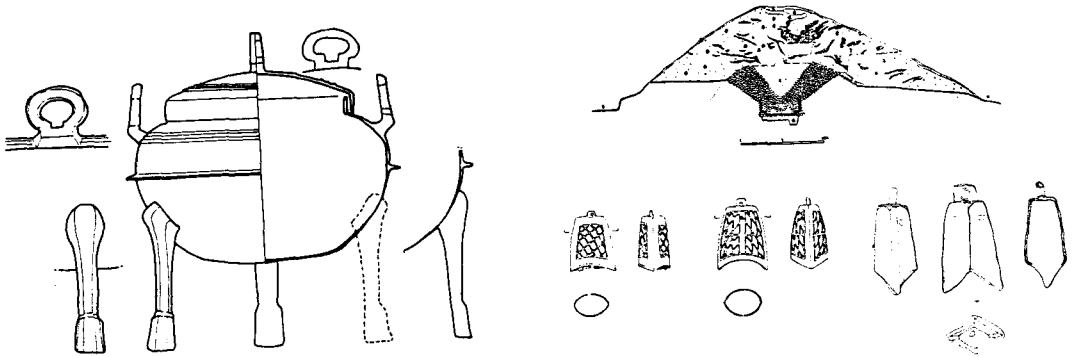
26) 鼎은 典型的인 모양의 것이 2점이며 다리를 組立할 수 있게 된 것이 1점이다.

27)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5. 『皇南大塚 北墳 發掘調査 報告書』

① 銅鼎은 귀가 안으로 약간 오무라드는 느낌을 주나 대체로 直立하며 胴體의 形態는 橢圓形이다. 뚜껑받이턱은 따로 마련된 것이 아니고 肩部에서 內半하여 오다 直立하고 여기에 둥근 고리를 가지는 뚜껑이 덮혀 있다. 귀의 形態는 병따개모양을 하며 胴體의 中位에는 돌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리의 形態는 動物狀이며 곧고 긴 편이다. ②의 銅鼎은 바닥이 平평한 편이며 胴最大徑이 옆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形狀을 한다. 胴最大徑部位에 전이 부착되어 있다. 귀는 內傾하는 채로 附着되어 있다. 뚜껑손잡이는 둥근 고리형으로 뚜껑의 中央部에 附着되어 있다. 다리의 形態는 곧고 날렵하나 기본적으로는 動物狀의 形態이다. 다리의 끝은 파손되었다. ③의 銅鼎은 ②와 같이 바닥이 평평하고 아래-위가 납작한 형이다. 손잡이의 形態는 ①·②와는 달리 밖으로 크게 외경한다. 胴最大徑部에는 突帶가 附着되어 있으나 突出하지는 않는다. 뚜껑이 덮혀 있으며 뚜껑꼭지는 결실된 것으로 보인다.

④의 鐵鼎도 胴體의 形態는 편구형이다. 直立하는 口緣을 하며 肩部에는 3條의 枕線이 형성되어 있다. 동최대경에는 돌대를 부착하였으며 다리의 形態는 상부가 그리 두툼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곧고 날렵하다. 다리의 끝부분이 약간 축약되어 있다. 귀는 파손되어 흔적만 남아있다. 鐵鼎의 뚜껑으로 사용한 것은 鉢形器臺의 受部이다.

(13) 天馬塚 出土遺物²⁸⁾



삽도 14. 천마총

전체적으로 橢圓形을 띤 銅鼎으로서 바닥은 둥근기미이다.

뚜껑손잡이는 下部가 段이져서 縮約되는 병따개형이며 側面形態는 一字로 곧다. 兩쪽에 대칭적으로 달린 귀의 形態는 역시 병따개 모양으로 안으로 약간 내만한다. 胴最大徑에 부착된 전은 水平으로 突出한다. 다리는 기본적으로 동물모양을 하고 있으나 길고 날렵하며 아래로 내려오면서 약간 벌어지고 있다. 胴體肩部와 뚜껑의 上面 1/2地點에는 각기 3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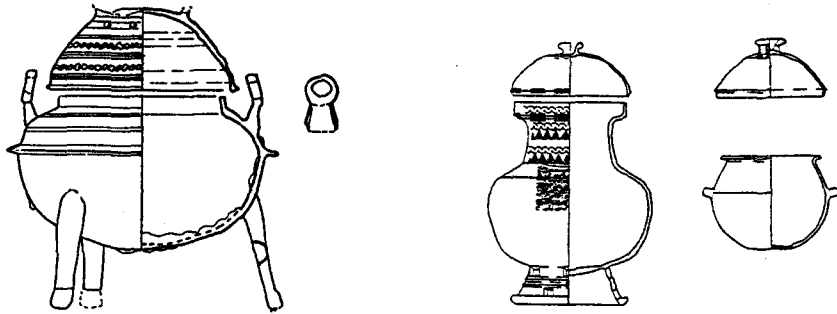
28) 金正基 外, 1974. 『天馬塚』(文化財管理局)

枕線이 돌려져 있다.

높이 : 21.0cm 最大徑 : 21.6cm 口徑 : 13.5cm

遺構는 典型的인 積石木槨墓로서 손잡이의 단면형태가 방형인 초두와 공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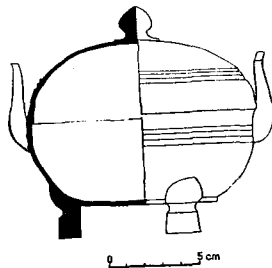
(14) 味鄒王陵地區 鐵鼎²⁹⁾



삼도 15. 미추왕릉지구

미추왕릉지구 7地區에서 출토된 鐵鼎이다. 胴最大徑은 중상위에 위치하며 여기에 전이 부착되어 있다. 口緣은 직립하고 있으며 동체손잡이는 어깨부분에 對稱되게 2개가 달려 있는데 둥근 고리형이다. 다리는 끝이 말발굽형이나 대체로 길고 곧게 외반하는 편이다. 특징적인 점은 뚜껑으로 사용된 것이 鉢形器臺라는 점이다. 鉢形器臺는 臺脚을 떼고 受部만을 이용하여 뚜껑으로 이용하였다.

(15) 皇吾里 出土遺物³⁰⁾



삼도 16. 황오리

29) 釜山大學校 博物館, 『味鄒王陵地區 第 7地區 古墳郡 發掘調査報告』, 『慶州地區 古墳調査報告書 第2冊』 (文化財 管理局, 慶州史蹟管理事務所).

30) 國立博物館, 『皇吾里 4,5號古墳·皇南里 破壞古墳 發掘調査報告』, 『國立博物館 古蹟調査報告 第5冊』.

황오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鐵鼎이다. 짧은 다리가 달린 것과 외반하는 손잡이가 달린 것을 除外하면 유개대부합과 거의 유사한 형태이다. 뚜껑에 달린 꼭지의 形態는 보주형으로서 이 時期 石室墳에서 出土되는 대부합의 꼭지모양과 유사하다.

이상이 韓半島와 그 隣接地域에서 출토된 靑銅鼎資料의 大部分이다.

물론 皇五里에서 출토된 것은 소재가 鐵이고 형태에 있어서도 다른 것과 다소 이질적이지만 전체적인 形態에 있어 鼎의 형태를 하고 있어 檢討對象에 포함시켰다.

4. 중국에서의 靑銅鼎 製作과 變遷

中國에서 靑銅器 鑄造의 開始年代는 대개 이리두 文化段階부터이다.³¹⁾ 그러나 본격적으로 靑銅器가 제작 사용된 것은 殷·周時代 이후이며 다종다양한 청동기들이 제작 사용되어졌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靑銅器의 등장은 다른 文明世界와는 약간 다른 樣相을 보이고 있다. 즉 靑銅器時代의 시작과 함께 實生活用的 靑銅器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사치스러운 동물장식이나 인물장식이 표현된 靑銅器들이 出現한다는 것이다. 또한 武器에 있어서도 實用性을 고려한 銅器들이라기 보다는 대부분 非實用的이고 사치스러운 것이라는 것이다. 中國에서 이처럼 靑銅器時代의 초기에 비실용적이고 여러가지 장식이 표현된 靑銅器가 出現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解析이 있으나 이를 道德的 權威를 획득하여 지배를 위한 統治權力을 獲得해 나가는 手段으로 이용하였다는 見解가 있어 注目된다.³²⁾

中國에서 靑銅鼎은 주로 肉食을 끓이거나 데우는데 사용되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儀禮化 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周代에는 사용될 수 있는 鼎을 身分에 따라 制限하는 의제가 있어 이시기 墳墓에서 출토되는 鼎의 수자를 통해 이들의 身分推定이 가능하다고 한다.³³⁾

中國에서의 靑銅鼎 資料를 報告되어진 時代를 토대로하여, 확인된 資料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殷·周時代의 靑銅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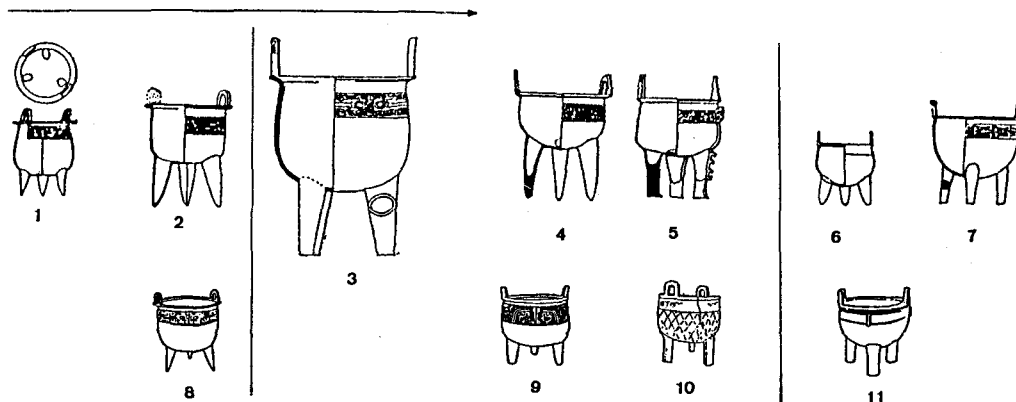
殷·周時代의 靑銅鼎은 앞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하였듯이 대부분이 無蓋式의 方形鼎이 많다. 또한 胴體에는 화려한 文樣이 裝飾되어 있다. 初期의 경우 다리의 形態에 있어 中國新

31) 張光直著, 小南一郎譯, 1989. 『中國靑銅器時代』(평범사). 물론 靑銅器鑄造의 시작은 二里頭 文化에서 확인되지만 張은 中國에서의 靑銅器時代의 시작은 靑銅器使用 社會내에서 顯著한 比重을 가지는 時期부터라고 한다. 물론 이 시기는 殷·周時代 이후일 것이다.

32) 장광직, 1990. 『신화 미술 제사』(동문선).

33) 中國科學院 考古學研究所, 1959. 『上村嶺浮國墓地』(科學出版社).

石器 時代의 三足土器의 형태와 많이 닮아 있으며 後期가 되면서 점차 動物狀의 다리형태를 하는 것이 나타난다. 靑銅鼎에 표현된 文樣은 초기에는 대부분 사실적인 동물문이나 人物狀을 표현한 것이 많으나 차츰 圖式化되어가는 경향을 나타낸다.³⁴⁾



삼도 17. 은·주대의 청동정

(2) 春秋 戰國時代의 靑銅鼎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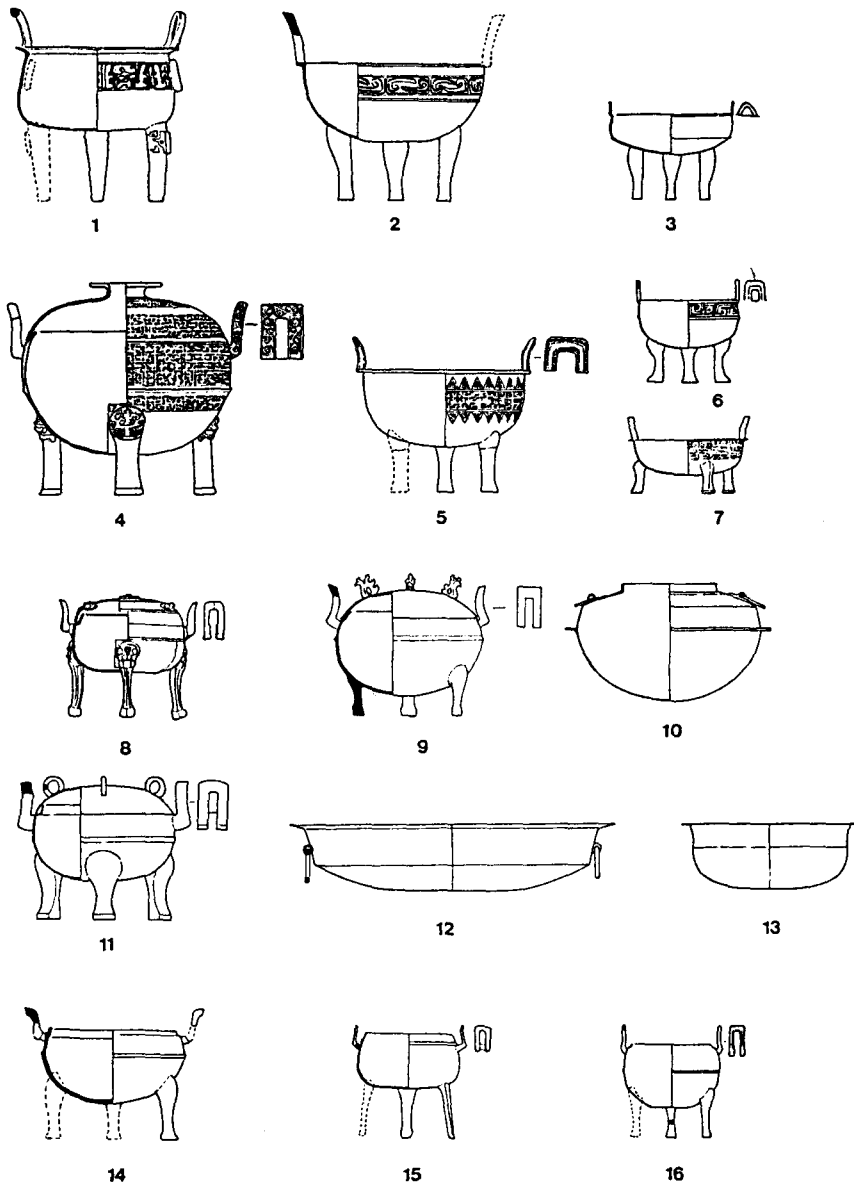
春秋時代가 되면 새로이 有蓋式의 靑銅鼎이 등장하는 것이 제일 큰 특징이며 장식된 文樣도 간소화되어가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아직도 文樣이 장식된 鼎이 남아 있기도 하며, 일부 無蓋式의 鼎도 확인된다.

戰國時代에 이르러 靑銅鼎은 殷·周時代 以後부터 流行하던 無蓋式은 대부분 사라진다. 또한 殷·周時代 春秋時代까지 사용되던 화려한 裝飾의 鼎은 찾아보기 힘들며 대체로 文樣적인 要素가 간소해지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簡素化되고 圖式化되기는 하였으나 일부 文樣裝飾靑銅鼎이 남아 있기도 하다. 이 時期 靑銅鼎을 중요한 屬性이라고 판단되는 다리, 동체모양, 손잡이의 형태, 뚜껑에 붙은 고리의 형태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리의 모양은 대부분 動物모양으로 上位가 굵고 下位가 날씬하며 짧은 것이 특징이다. 胴體는 대부분이 橢圓形이고 바닥이 둥글다. 胴體에 부착된 손잡이는 대부분 고리모양이거나 'ㄷ'자 모양으로 짧은 것이 특징이다. 뚜껑에는 손잡이가 없는 것과 나팔상의 손잡이가 뚜껑의 중앙에 붙어 있는 것이 있다. 또한 3개의 둥근 고리-고리의 上部에 작은 돌기가 부착된다.-가 달려 있다. 물론 뚜껑꼭지의 형태는 사슴, 개 등의 동물상이나 닭벼슬 모양의 것도 있다. 돌기있는 고리형 뚜껑 꼭지가 3개 붙은 形式은 前漢時代 前期와 中期까지 유행하는 것인데 後漢代가 되면 陶鼎으로 변화하여 찾기가 힘들다. 이러한 靑銅鼎이 埋納되는 遺構는

34) 孟憲武, 1991. 「安陽 三家庄, 董王度村發見的 商代 靑銅器與 其 年代推定」, 『考古 10期』.

35) 中國에서의 靑銅鼎資料는 주로 考古與文物, 考古, 文物 資料를 이용하였다.



- | | |
|-----------------------------|------------------------------|
| 1. 寶鳴竹園溝 等地出土(考古 1978年 第5期) | 8. 湖北省 出土遺物(考古 1978年 第1期) |
| 2. 安徽省 肥西縣 出土(考古 1984年 第9期) | 9-10. 陝西省 咸陽出土(考古 1979年 第2期) |
| 3. 湖南省 出土(考古 1978年 158回) | 11-13. 濟南千佛山 出土(考古 1991年) |
| 4. 風翔出土(考古與文物 1991年 第2期) | 14. 山東省 出土遺物(考古 1990年 第3期) |
| 5. 山西省 出土遺物 | 15. 長沙省 出土遺物(考古 1984年 第9期) |
| 6-7. 湖北省 出土遺物(考古 1982年 第2期) | 16. 山西省 出土遺物(考古 1991年) |

삼도 18. 춘추전국시대의 청동정

대부분 土壙木棺墓이거나 土壙木槨墓인데 共半遺物로는 戰車, 土器類, 銅洗, 青銅矛, 青銅盒 등으로 다양하다.

(3) 前漢代의 青銅鼎

前期

이 시기 青銅鼎의 가장 큰 特徵은 胴體에 文樣이 裝飾된 것이 거의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銅器文化가 退潮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中國社會가 마야흐로 본격적인 政治權力을 바탕으로하는 조직된 국가사회로서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前漢前期의 銅鼎에 있어 胴體의 形態는 납작한 타원형이 大部分이며 銅最大徑이 있는 中位정도에 들대가 附着된다. 胴體에 附着된 손잡이의 형태는 측면에서 보아 약간 외반하며 正面에서 보아 세워진 ‘ㄷ’자 모양을 하는데 짧은 편이다.

뚜껑은 3個의 突起가 附着된 고리가 달려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뚜껑의 中央에는 乳頭狀의 突起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다리의 형태는 上位가 두툼하고 下位가 날렵한 느낌을 주나 짧은 것이 기본이다. 이러한 銅鼎은 前時期 즉 戰國時代말기에 등장하는 銅鼎의 形式으로 前漢中期까지 流行하며 陶鼎으로 바뀐 다음 後漢대까지 일부 存續하게 된다.

前漢 즉 西漢 前期에 青銅鼎을 출토하는 遺構는 土壙墓, 土壙木棺墓, 土壙木槨墓등이다. 이러한 遺構들은 前時期와 類似한 형태이나 規模면에서 大型化하는 特徵을 가진다. 共半되는 遺物은 青銅製 편수병, 李建茂에 의해 韓半島에서는 紀元前 3世紀로 編年되는 小型방울, 紀元前 173년으로 製作年代가 確實한 半兩錢 外에 많은 土器資料가 있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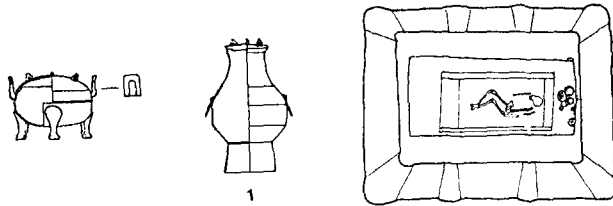
中期

形態의으로 前漢前期와 큰 差異가 發見되지 않는다. 銅鼎의 바닥형태가 거의 圓形에 가까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뚜껑의 가운데에 부착되는 작은 손잡이의 예가 거의 사라지고 前期에서부터 보이는 뚜껑에 돌아가면서 附着된 3개의 둥근 고리가 대부분이다. 다리의 형태도 거의 흡사하나 동물다리의 경우 약간 길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곧고 길죽한 다리가 나타나는 것도 이 때 부터이다. 共半되는 遺物은 거의가 前期와 흡사하나 青銅製 薄山瀘의 出土例가 增加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製作年代가 紀元前 118年인³⁷⁾ 五銖錢이 共半되어 出土하는 예가 있어 絶對年代 추정의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素明鏡과 日光鏡등의 각종 前漢鏡이 출토된다.

이러한 青銅器를 出土하는 遺構는 대부분 木槨墓로서 木棺墓나 순수土壙墓는 없어진다.

36) 李建茂, 1987. 「韓國 青銅儀器의 研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37) 김안국 외, 1992. 「동아시아사 연표」(청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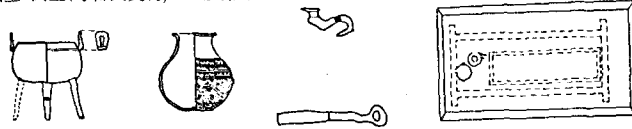


咸陽市 黃家溝 戰國墓(考古與文物, 1982 第6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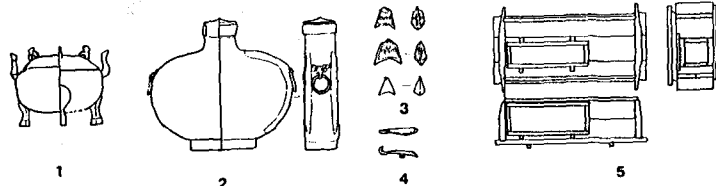
甘肅省 戰國墓 出土(考古與文物, 1982 第5期)

陝西省 出土(考古與文物, 1981 第1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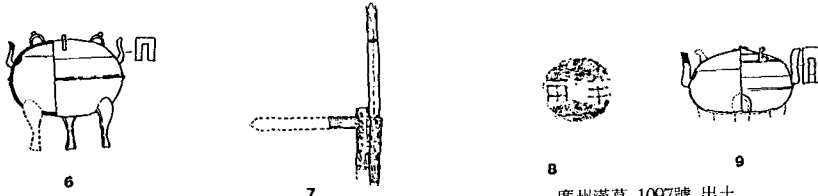


元祭 羊姑木兒墓 出土 (考古 双月刊, 1987)

삼도 19. 전국시대의 청동정과 공반유물



四川省 出土 (考古與文物 双月刊,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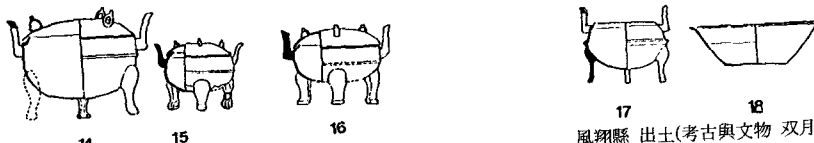
西安東郊 三店村 出土(考古與文物 双月刊, 1983)

廣州漢墓 1097號 出土



宜昌前坪 出土 9(考古 1985第5期)

廣州漢墓 出土遺物



湖北省 宜省 楚皇省 漢墓 出土(考古 1980第2期)

風翔縣 出土(考古與文物 双月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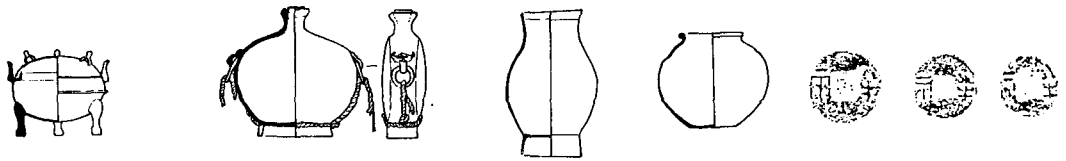
삼도 20. 전한전기 출토정과 공반유물

後期

前漢後期가 되면 靑銅鼎의 出土例가 급격히 감소한다. 또한 대부분이 陶鼎으로 대체되며 共半遺物도 減少한다. 胴體의 모양도 球形, 타원형등 여러가지이며 손잡이의 측면기울기도 統一性이 없다. 다리의 모양에 있어서도 길고 날씬한 것, 동물다리이면서 짧은 것등 여러가지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共半되는 유물로는 세발달린 靑銅製 壺도 있으며 이를 출토하는 遺構는 대부분 前室과 後室이 區分되는 木槨墓가 많다.

(4) 後漢代의 靑銅鼎

後漢代가 되면 靑銅鼎은 사라지고 大部分이 陶鼎으로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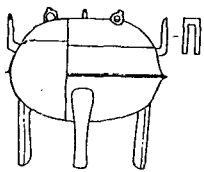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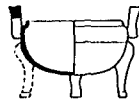
3

陝西省 漢中市 出土(考古與文物 双月刊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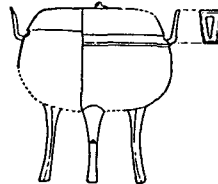


4

賀家園 3號 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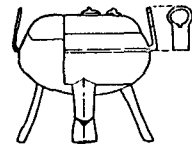


5



6

廣州漢墓 出土



7

삼도 21. 전한후-후한대의 청동정

後漢代의 陶鼎은 中期에 盛行하던 병따개모양의 손잡이, 3개의 뚜껑손잡이, 動物狀의 다리 등의 要素가 거의 사라지고 形態狀 특이한 모습으로 변한다. 바닥은 거의 平平하게 변하고 뚜껑에는 中央部에 작은 돌기만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손잡이는 사다리꼴 또는 병따개 모양으로 바뀌고 直立하거나 내만하는 것이 많다. 다리는 動物狀의 다리가 아니고 斷面三角形의 긴다리로 변하게 된다. 靑銅鼎의 경우에는 확인되는 것이 드문데 廣州漢墓등에서 일부

확인되는 것은 다리의 형태가 斷面 'V'字 形態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共半遺物로는 平低壺類의 土器, 그리고 陶製遵(壺) 등이 있으며 이를 共半하는 遺構도 木槨墓에서 건축분으로 대부분 바뀌고 있다.

(5) 廣州漢墓出土 鼎의 檢討

廣州漢墓는 中國 우주강 삼각주의 북부연안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中國의 南方에 위치하는 城市의 하나로서 大規模의 漢代 遺蹟으로 많은 遺構가 調査되었다. 古代의 廣州는 百越部族의 領域이라고 알려져 있다. 廣州 漢墓는 單一 遺蹟이면서 漢代 全般에 걸치는 다양한 墳墓들이 發掘되었다.³⁸⁾ 이 發掘을 통해서 많은 漢代의 遺物들이 出土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漢代의 墳墓와 出土遺物의 變化狀을 알아보는데 標識的 資料로 이용되고 있다. 韓半島에서 出土되는 여러 가지의 漢式遺物의 性格이나 年代를 추정하는데 있어서도 비교의 대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廣州漢墓의 出土遺物을 靑銅鼎을 중심으로 그 공반유물을 정리하면 보면 圖面 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前漢前期에는 주로 戰國時代에 流行하던 形態의 靑銅鼎이 出土된다. 즉 뚜껑에 3個의 動物形態의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3개의 둥근고리가 붙은 것이 출토된다. 共半遺物로는 靑銅洗와 靑銅 燂斗가 있다. 前漢前期로 編年되는 墓에서는 BC172年頃に 제작되어 流通年代가 BC 136년인 半兩錢이 일부 確認된다.³⁹⁾ 鏡은 戰國時代에 나타나는 山字文鏡이 主流를 이루며 일산대 장식이 공반되기도 한다. 물론 전한전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鐵製武器와 農工具들도 공반되는 특징을 보인다. 中心墓制는 순수 土壙墓이거나 土壙木槨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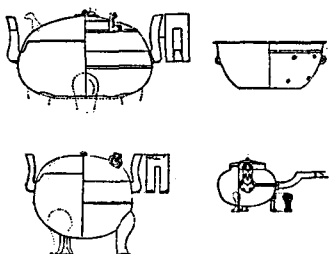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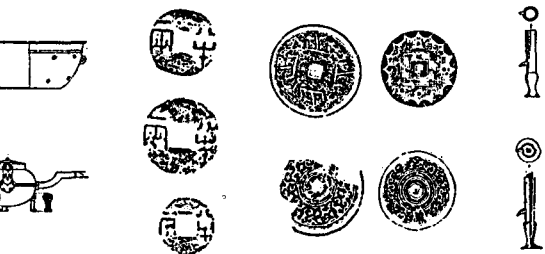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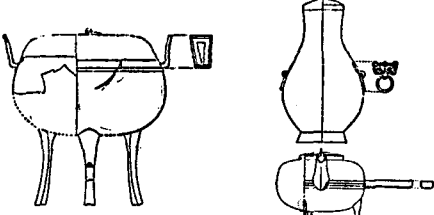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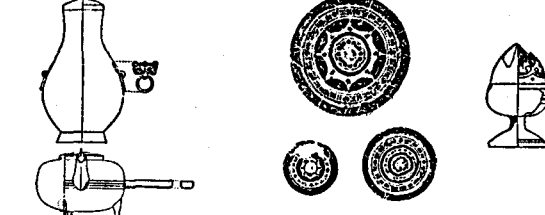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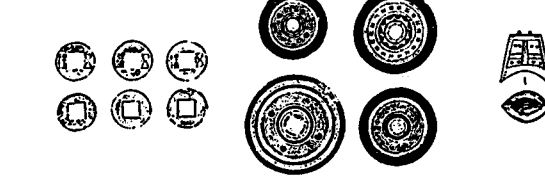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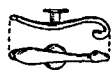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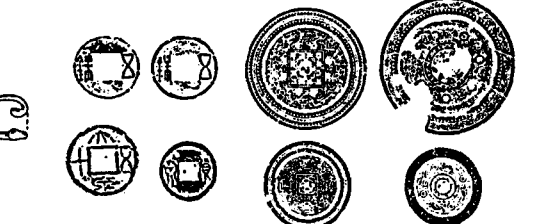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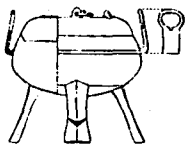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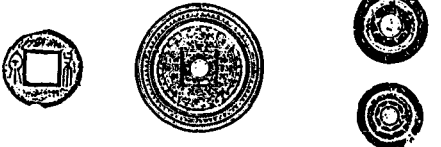
前漢中期로 편년되는 靑銅鼎은 형태가 前期와 비해 특이하다. 즉 既存의 동물상의 다리가 끌고 긴 斷面 三角形으로 바뀌고 뚜껑꼭지의 형태 그리고 동체에 달린 귀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공반되는 遺物로는 靑銅製 有蓋壺, 燂斗 등이 있으며 이時期에 가장 유행하던 銅鏡의 形式은 星雲汶鏡이 많다. 석암리 9號에서 출토된 박산로도 前漢 中期에 유행한다.

前漢 後기로 編年되는 靑銅鼎 資料는 廣州 漢墓에서는 確認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時期에는 새로 五銖錢이 나타나 時期區分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靑銅鏡의 形式은 雲龍汶鏡이 많다.

그러나 왕망의 新나라를 거쳐 後漢前期가 되어도 靑銅鼎은 出土例가 確認되지 않는다. 물론 일부 陶鼎은 출토되기도 한다. 이 시기에는 王莽代에 鑄造가 시작된 大泉五十도 鑄造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이 時期의 특징으로 方格規巨四神鏡이 등장한다.

38) 廣州市文物管理委員會·廣州市博物館, 1981. 『廣州漢墓』(文物出版社).

39) 김안국 외, 1992. 『알 책』(주 37).

종류 시기	청 동 정	공반 유물
전한 전기		
전한 중기		
전한 후기		
후한 전기		
후한 후기		

삼도 22. 광주한묘 출토정과 공반유물의 변천

後漢後期가 되면서 前漢中期에 일부 確認되던 形式과 類似한 靑銅鼎이 나타나는데 다리의 형태는 斷面 'V'字 形이며 뚜껑고리는 문고리형이며 귀의 형태는 병따개 모양을 하는 것이다. 이 時期 靑銅鏡에는 方格規巨四神鏡과 日光鏡등이 있다.

廣州漢墓에서 出土된 이들 遺物의 年代的 序列은 다른 지역에서 出土된 漢式 文物의 性格과 年代的 의미를 파악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5. 資料分析

1) 靑銅鼎의 분류와 변천과정

a) 分類

以上에서 中國에서의 靑銅鼎의 製作과 變遷過程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전체를 대략적인 전개과정을 통해 정리한 결과 韓半島와 집안에서 出土된 靑銅鼎과 比較分析을 하기에는 容易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韓半島에서 出土되는 靑銅鼎과 형태적인 유사성이 높은 春秋·戰國時代 이후의 靑銅鼎을 중심으로 이들 資料를 몇가지의 形式으로 나누어 그 變化過程을 파악해보았다.

中國과 韓半島에서 出土되는 靑銅鼎을 대략 다음의 表와 같이 分類하였다.

물론 韓半島 出土品과 中國대륙에서 出土된 자료를 같이 분류한 것은 일단 이들 정이 중국자료와 어떻게든 관련되어 있다는 前提下에서 이다. 分類에 있어서는 戰國時代에 이르면서 鼎은 文樣이 없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大勢가 確認되므로 이를 1次 分類基準으로하여 分類하였다. 2次分類은 뚜껑의 形態에 의해, 3次는 동체손잡이의 形態에 의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뚜껑받이 턱의 形態에 의해 구분하였다.

다리의 形態도 分類基準이 되나 이는 各 形態의 資料에 있어 時間의 屬性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므로 일단 分類의 기준에서는 除外하였다.

(1) Aa1a형

胴體와 다리 및 귀에 文樣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뚜껑손잡이의 형태는 나팔형 이다. 귀의 形態는 대개 直四角形이다. 뚜껑받이턱이 形成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한정한다.

(2) Ab1a형

文樣이 남아 있으며 뚜껑에는 동물모양이거나 닭벼슬모양의 손잡이가 3개 붙어있다. 귀의 형태는 直四角形이며 뚜껑받이턱이 形成되어있다.

(3) AX1c형

文樣이 있으나 無蓋式의 靑銅鼎으로 戰國時代가 되면서 거의 사라지는 器形으로 보인다. 다리의 모양은 動物狀의 形態이다.

분류 기준	1次분류 문양	2次분류 뚜껑꼭지	3次분류 귀형태	4次분류 뚜껑받이턱	鼎의 형태	
鼎		無 0				Aala
		a				Ao1c
		b	1	a		Ac1a
		c	2	b		Bb1a
		d				Bc1a
		e	3	c		Bo1a
		f				Bd3b
						Bf1b

삽도 23. 청동정 형식 분류표 (전국시대 이후)

文樣이 있는 A式의 靑銅鼎은 大部分 殷·周時代를 거쳐 春秋戰國時代를 지나면서 차츰 소멸하는 경향을 띤다.

A式의 靑銅鼎에는 dref 식의 뚜껑꼭지는 확인되지 않고 2·3식의 귀형태도 확인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4) Bb1a형

胴體에 文樣이 사라졌으며 3개의 닭벼슬모양의 뚜껑꼭지가 붙어있으며 直四角形의 귀, 그리고 뚜껑받이턱이 형성되어 있다. Bb1a형식에는 닭벼슬 모양의 꼭지외 외에도 사슴이나 개등의 動物모양으로 이루어진 것도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5) Bc1a형

文樣이 장식되지 않았으며 3개의 젓꼭지모양의 뚜껑꼭지가 부착되고 귀의 형태는 직사각형이다. 거의가 뚜껑받이 턱이 형성되어 있다.

(6) Bc2a형

文樣은 장식되지 않았으며 젓꼭지모양의 돌기가 3개 부착되어 있고 귀의 형태는 梯形이다.

(7) Bc3a형

文樣은 시문되지 않았고 뚜껑에는 젓꼭지모양의 꼭지가 3개 달려 있다. 귀의 형태는 병따개 모양이며 뚜껑받이턱은 형성되어 있다.

(8) BX1a형

文樣이 없는 것이며 뚜껑이 없는 형식이다. 귀의 형태는 直四角形이며 뚜껑받이턱이 형성되어 있다. 뚜껑이 없이 출토되는 것이어서 따로 분류하였으나 뚜껑받이턱이 形成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뚜껑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Bc1a와 同一 形式일 가능성이 높다.

(9) Bd3b형

文樣이 없으며 등근고리가 뚜껑에 부착되었다. 손잡이의 形態는 대개 병따개 모양이며 뚜껑받이턱은 따로 마련되지 않고 肩部에서 口緣으로 바로 연결된다.










(10) Bf1b형

寶株형의 꼭지를 가지는 것으로 素材는 대개가 鐵이다.

韓半島와 집안, 그리고 中國大陸에서 확인되는 靑銅鼎은 대략 이상과 같이 분류되어진다. 물론 이러한 分類에는 韓半島의 靑銅鼎과 比較가 곤란한 殷·周時代의 靑銅鼎은 除外하였다.

b) 各 形式의 使用과 消滅

이렇게 形式分類된 靑銅鼎資料를 時代別 變化過程을 중심으로 나타내면 圖面 25와 같다. 時期區分의 根據은 일단 中國의 경우 共半遺物(銅錢·銘文)을 통하여 時期가 확인되는 것이

형식 시기									
	A01c	A1a	A2a	B1a	B2a	B01a	Bc3a	Bd3b	Bf1b
殷·周 BC~	■								
春秋時代 BC770~	■	■	■	■					
前漢前期 BC206~				■	■	■	■		
前漢中期 BC120~					■	■	■		
前漢後期 BC60~ BC 8									
後漢代 AD25~									
三國時代 (魏蜀吳) AD220~									

삼도 24. 중국내에서 청동정 각 형식의 사용시기

(비교자료 無)

따라서 報告者들의 報告年代에 따라 대체적으로 정하였다. 時期가 애매한 것은 形態比較와 共半遺物을 통하여 위치를 정하였다. 특히 半兩錢·五銖錢 등의 貨幣는 時期區分에 있어 좋은 기준이 되었다.

圖面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中國에서는 戰國時代가 되면서 靑銅鼎에 새로운 形式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Bc1a, B01a類가 새로이 나타난다. 이렇게 나타난 靑銅鼎은 前漢 前期까지 대단히 유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殷, 周 時代까지 유행하던 無蓋式의 화려한 鼎은 이 時期를 거치면서 대부분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國歌勸力의 強化에 따른 靑銅鼎의 사회적 기능약화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前漢前期를 지나 中期가 되면 前段階에서 사용되던 靑銅鼎들이 일부 계속 사용되어지나 차츰 줄어들어 가는 경향이 觀察된다.

2) 중국자료와의 비교검토

앞에서 中國에서 戰國時代 以後의 靑銅鼎의 型式과 그 使用年代를 검토해 보았다. 여기서는 韓半島에서 出土된 靑銅鼎을 구분하여 中國資料와 직접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한반도와 집안에서 출토된 靑銅鼎은 대개 5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1) Bala 類 : 정백동 8호에서 출토된 鼎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文樣이 없고 뚜껑에 3개의 둥근 고리가 붙어있고 직사각형의 귀가 달려 있으며 뚜껑받이턱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2) B01a 類: 無文樣이며 뚜껑이 없고 귀의 형태는 직사각형이다. 뚜껑받이턱이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어 출토당시 뚜껑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으나 실지로 뚜껑이 있는 Aa1a식과 동일 형식으로 이해되어진다. 이는 戰國時代 이전의 무개식 정과 형태상 다른 점이 확인되며 또한 구연에 뚜껑받이 턱이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下岱出土品과 良東里에서 출토된 것이 여기에 속한다. 물론 下岱출토품은 여러 가지점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있으나 결국 形式을 이야기 함에 있어서는 여기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3) Ba2a類 : 선교리 출토품, 정오리 출토품, 낙랑군치지 出土品, 낙랑토성리, 석암리에서 출토된 형식이 여기에 속한다. 한반도에서 출토된 대부분의 靑銅鼎들이 Aa2a를 띠고 있어 주목된다.

(4) Bd3b類 : 칠성산 98호와 우산68호 그리고 天馬塚과 皇南大塚등지에서 발견되는 靑銅鼎 역시 이 形式에 속한다. 無文樣이며 뚜껑에는 둥근고리모양의 뚜껑손잡이가 달려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有蓋式이면서 따로 뚜껑받이 턱이 마련되지 않는 것도 A류의 靑銅鼎과 다른 점이다.

(5) Bf1b類 : 황오리 出土의 鼎이 여기에 속한다. 有蓋式 鼎으로 보주형의 꼭지에 뚜껑과 胴體의 中上位에 3條의 枕線이 형성되어 있다.

韓半島와 집안에서 출토된 靑銅鼎을 대상으로 中原(中國大陸)에서 확인되는 春秋戰國時代 以來의 많은 靑銅鼎과 비교하여 본 결과 Bc1a류, Bo1a류, Bo3a류 등이 있다. 이 중 Bc1a와 Bo1a류는 동일 형식일 가능성이 많으며 胴體에 달린 귀의 형태가 다른 점에서 Bo3a류와는 약간의 차이가 인정된다.

이러한 形式의 靑銅鼎은 中國에서 戰國時代 以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前漢代에 특히 前漢前期에 많이 제작되어 사용되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形式의 靑銅鼎은 前漢 中期까지 일부 사용되다가 前漢 後期가 되면서 사용되지 않는 形式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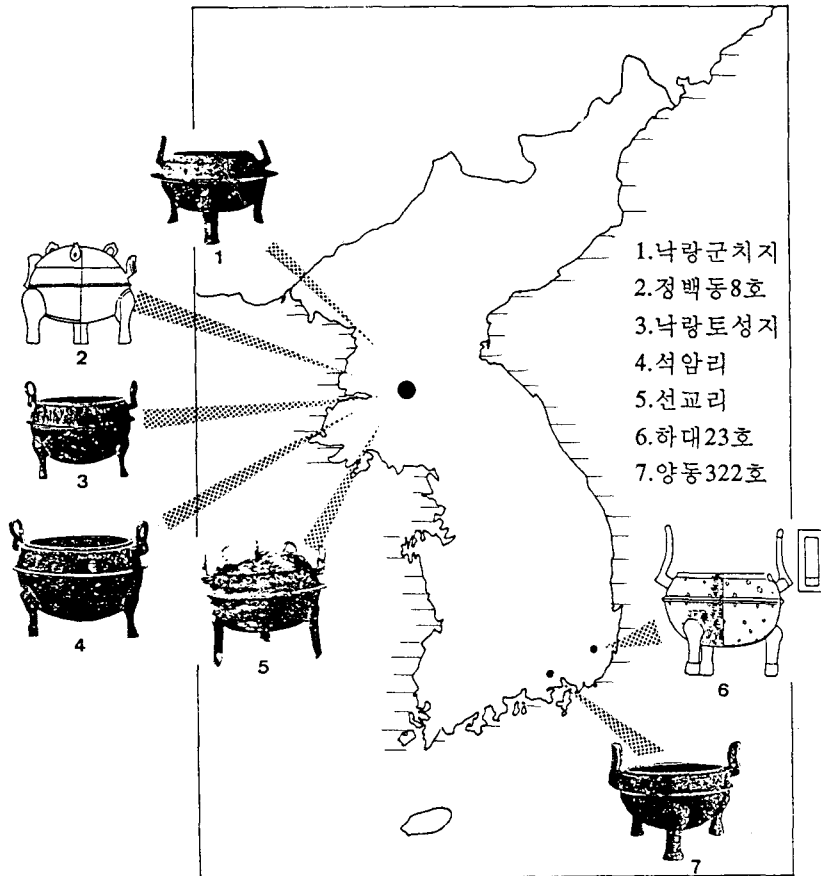
즉 韓半島에서 발견되는 靑銅鼎 중 평양부근과 下岱 그리고 良東里에서 확인되는 靑銅鼎은 中國의 資料와 形態가 거의 일치하며, 戰國時代 後半에서 前漢 前·中期의 어느 시점을 上限으로하여 交叉年代를 추정할 수 있는 資料라는 것을 일단 확인하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집안의 資料와 慶州의 積石木槨墓에서 確認되는 遺物이다. 이들 遺物은 中國遺物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할 만한 資料가 없다. 이는 앞장의 變遷表에서 확인되었던 바와 같이 比較資料가 없었으므로 이를 망치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漢代의 靑銅鼎과 유사함이 인정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지로 뚜껑고리의 形態에서 그리고 有蓋式이면서도 뚜껑받이턱의 형태에서 큰 차이가 確認된다. 즉 有蓋式이면서 뚜껑의 頂上部에 달린 고리가 등근 형태를 띠는 것은 中國의 경우 확인되지 않는다. 단 靑銅鼎은 아니나 陶鼎의 경우 비슷한 고리가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존재이며 그나마도 고리의 斷面形態가 袋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확인된다.⁴⁰⁾ 또한 뚜껑받이턱의 形態에 있어서도 中國資料와 큰 차이가 확인된다. 즉 中國에서 出土되는 有蓋式의 靑銅鼎의 경우 大部分 2段으로 뚜껑받이턱이 形成되어 있다. 그러나 집안의 初期 積石墓나 慶州의 積石木槨墓에서 발견된 靑銅鼎은 有蓋式이면서도 뚜껑받이턱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韓半島에서 출토되는 靑銅鼎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中國에서 出土되는 靑銅鼎과 동일한 형태의 것, 즉 中國에서 이입되었다고 보아도 좋은 것이다. 또 하나의 부류는 中國大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韓半島와 집안에서만 확인되는 것이다.

40) 廣州市 文物管理委員會·廣州市 博物館, 1981. 『廣州漢墓』(文物出版社), pp.124, 1075號.

6. 한반도 출토 靑銅鼎의 그 系譜와 系譜別 先後關係



삽도 25. 이입(중국산) 청동정의 출토 양상

앞 章에서 보았듯이 韓半島에서 출토되는 靑銅鼎은 그 系譜에 있어서 2가지로 구분되어 짐을 알 수 있다. 즉 中國에서 出土되는 靑銅鼎과 形式上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들과 中國에서는 出土例가 확인되지 않고 韓半島에서만 확인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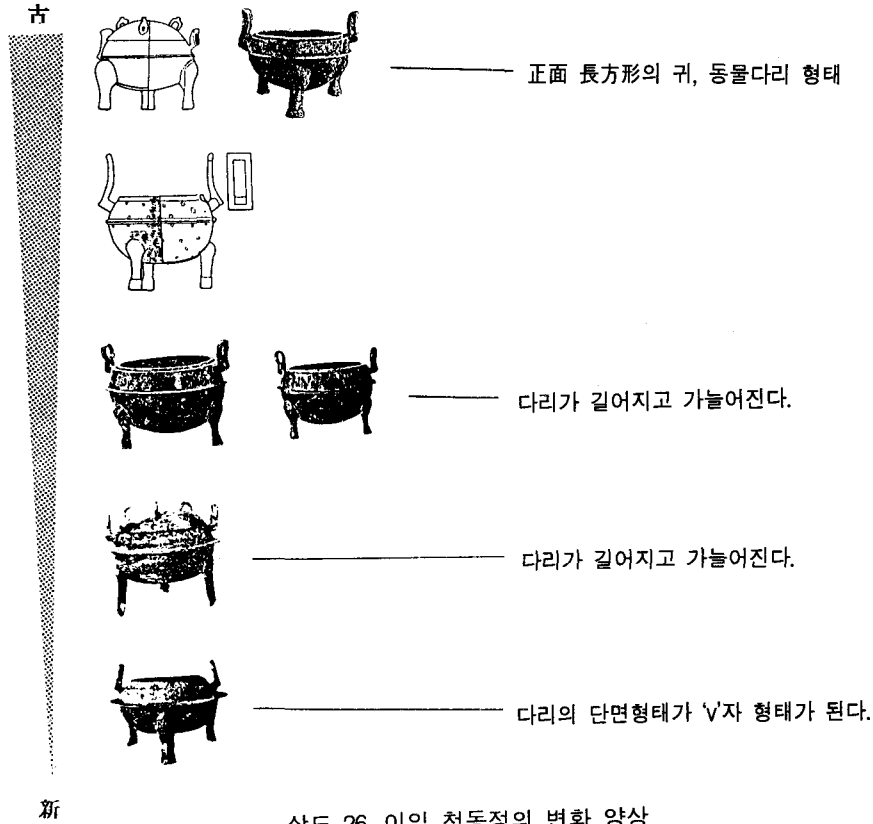
이러한 區分의 기준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靑銅鼎에 있어서 뚜껑꼭지의 형태와 뚜껑받이 턱의 形態差에 의해서이다. 즉 전체적인 形態에서는 類似한 것으로 보이나 뚜껑의 上面에 둥근 고리형태의 꼭지가 달리고 有蓋式이지만 뚜껑받이턱이 따로 形成되지 않는 것을 韓國式 靑銅鼎이라고 命名하기로 한다.⁴¹⁾ 그리고 형태적으로 각 部位의 屬性이 中國鼎과 완전히 일치하는 鼎을 移入靑銅鼎이라고 分類하여 이를 區分한다.

(1) 移入(中國産) 靑銅鼎

앞 장에서 살펴 보았지만 韓半島에서 확인되는 輸入靑銅鼎은 3가지 形式이다. 물론 뚜껑이 결실된 채 確認된 것들이 同一 形式의 것일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 크게 2가지로 區分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靑銅鼎이 中國에서 確認되는 靑銅鼎과 同一形式의 靑銅鼎임은 앞장에서 살펴 보았다. 이 들 遺物이 確認되는 곳은 韓半島 西北地方과 洛東江 水系의 下流域에서이다. 즉 西北地方과 洛東江 下流域에서 確認되는 資料의 系譜는 中國에서 구하고자 한다. 移入方法은 몇 가지의 상황을 推論 할 수 있다. 交易에 의한 移入의 可能性, 그리고 移住民에 의한 靑銅鼎의 移入 可能性 또한 배제할 수 없다.

韓半島에서 출토된 漢式 靑銅鼎을 앞장에서 살펴본 中國大陸에서의 靑銅鼎의 變化過程과 비교하여 보아 이들의 相對順序를 정하면 다음과 같다.



삼도 26. 이십 청동정의 변화 양상

41) 물론 韓國이라는 것이 지금의 國家 概念이라서 이 時期의 遺物을 설명함에 있어 부적합한 면에 있으나 이를 대신해 줄 적당한 用語가 없으므로 일단 韓國式이라고 하기로 한다. 이는 細形銅劍을 韓國式銅劍이라고도 부르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韓半島에서 출토된 漢式 靑銅鼎 중에서 가장 시기가 빠른 것은 정백동 8호 그리고 良東里 322號이다. 또한 이질적인 요소가 일부 보여지나 下垈출토의 유물도 빠른 形式의 것이다. 이들보다 약간 늦게 등장하여 사용된 靑銅鼎이 귀의 형태가 병따개 모양을 하는 선교리, 낙랑토성지, 석암리9호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다른 속성은 동일하다.

또한 이들 遺物 중에서 出現時期가 가장 늦은 것은 樂浪郡治址에서 출토된 遺物이다. 이 遺物은 뚜껑이 없는 상태로 출토되었는데 귀의 형태는 병따개 모양이며 안으로 약간 內傾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리의 형태에 있어 다른 것과 구분되는데 다리의 형태가 動物狀의 形態가 아니라 斷面三角形의 形態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形式의 다리는 前期 後半이나 後漢代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形態이다.

(2) 韓國式 靑銅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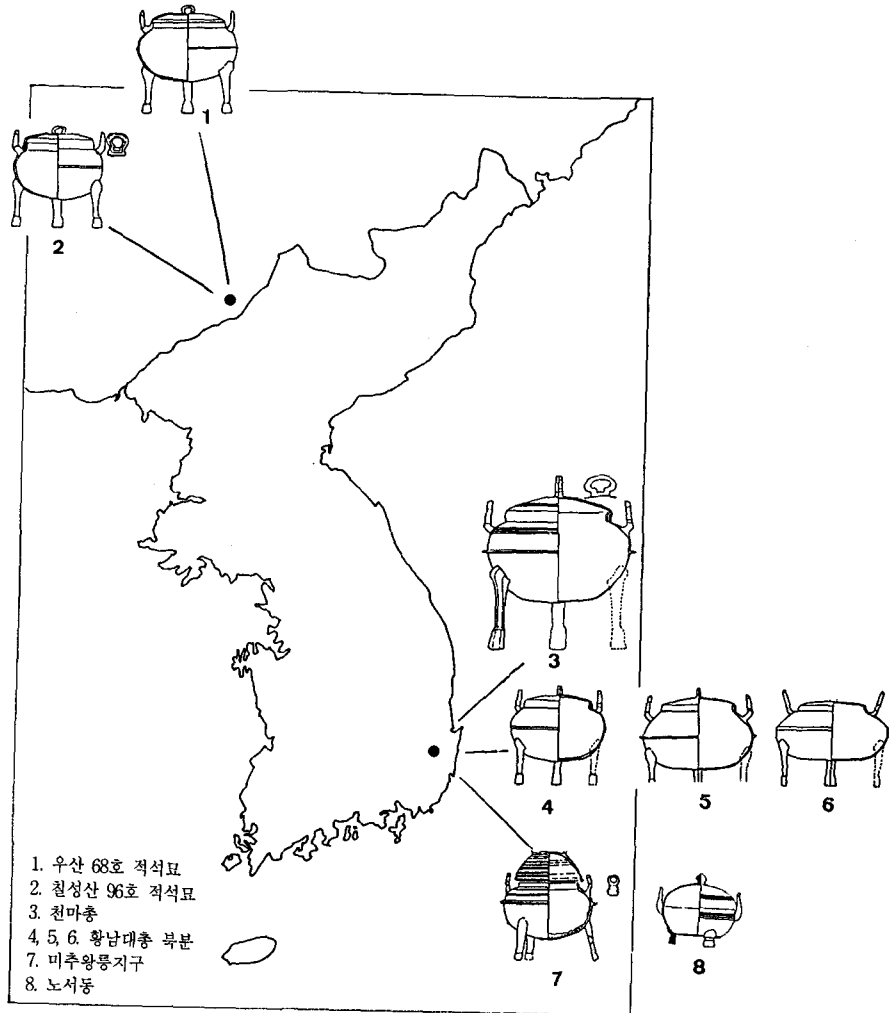
집안에서 確認되는 遺物과 慶州의 積石木槨墳에서 확인되는 遺物은 形態上 거의 동일하다. 이들 遺物은 中國大陸에서 확인되는 漢式의 靑銅鼎과는 뚜렷한 차이가 確認되므로 이를 韓國式 靑銅鼎이라고 한다.

이들 遺物을 形態的인 特征(屬性)은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有蓋式이면서 뚜껑받이턱이 없는 것과 뚜껑중앙에 형성된 손잡이가 둥근모양이라는데 있다.

이러한 屬性的 特徵을 가지는 靑銅鼎은 소위 中原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데 이러한 靑銅鼎이 中國大陸에서 確認되는 漢式의 遺物이 아니라는 것이다.

韓國式 靑銅鼎은 다시 細部的인 屬性의 차이에 의하여 相對序列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 韓半島에서 출토된 靑銅鼎의 形式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대개 4種類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이를 出土 遺物의 屬性중 뚜껑고리의 形態나 胴體에 형성된 突帶의 有無 등으로 이들의 대략적인 相對序列을 정할 수 있다. 우선 우산이나 칠성산에서 출토된 靑銅鼎이 가장 빠른 형식으로 보여진다. 우산이나 칠성산에서 출토된 靑銅鼎은 대개 뚜껑고리의 형태가 下部가 縮約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뚜껑고리의 형태가 이러한 것은 後代의 철정에서 보이는 축약되는 고리와는 구분되므로 이를 古式으로 보았다. 또한 後代의 것으로 보이는 鐵鼎의 어깨에 시문된 枕線의 요소를 後代의 요소로 보인다. 즉 뚜껑고리의 形態와 肩部에 시문된 枕線의 有無 그리고 素材의 차이 등을 時間的 屬性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時間的인 順序로 區分하면 다음과 같다.

韓半島와 집안에서 확인되는 韓國式 靑銅鼎 중에서 가장 古式은 우산과 칠성산의 靑銅鼎이며 이들은 대개 둥근 뚜껑고리의 형태를 하되 고리의 하부가 축약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견부나 뚜껑의 일부에 枕線이 새겨지지도 않는다. 칠성산·우산에서 확인된 靑銅鼎이 가장 古式이라고 했을 때 다음 단계의 靑銅鼎은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것이다. 기본 형태적 屬性은 우산이나 칠성산의 것과 거의 흡사하지만 뚜껑고리의 下部가 縮約되는 특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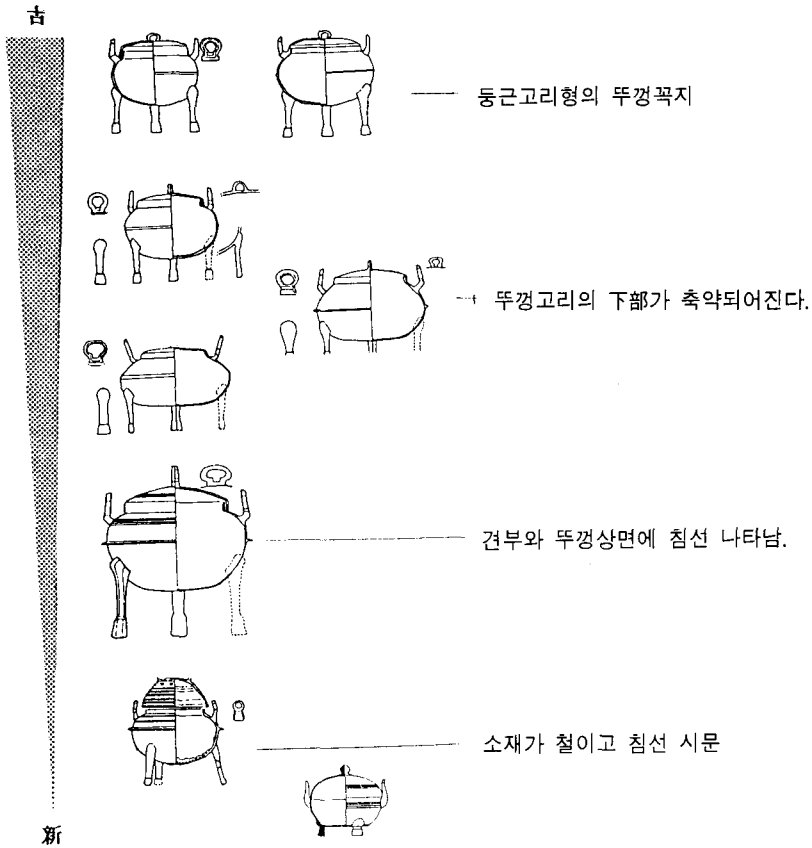
삽도 27. 한국식 청동정의 출토 양상

나타난다. 또한 귀의 形態도 약간씩 달라지며 胴體도 前時期의 것에 비해 약간 평평해지는 특징이 나타난다. 황남대총북분보다 남분이 약간 더 늦은 형식이며 그다음에 天馬冢 그리고 노서동·미추왕릉지구의 鐵鼎으로 이어지는 相對年代序列이 확인된다. 전과 돌대의 차이에 있어서는 최병현이 지적한 것처럼 時期次를 反映하는 요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⁴²⁾

집안과 경주에서 확인되는 靑銅鼎은 약간의 속성변화가 확인되나 형태에 있어 흡사하게 남아있다. 이들 靑銅鼎은 대개가 漢代의 鼎에서 Motif를 받아 高句麗에서 製作된 遺物로

42) 崔秉鉉, 1993. 「新羅古墳研究」(一志社) 362.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前漢代에 이미 大部分이 消滅된 靑銅鼎이 오히려 高句麗와 新羅에서 後代까지 나타나는 현상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신라 즉 경주에서 확인되는 靑銅(鐵)鼎은 대개 高句麗에서 製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시기 高句麗 金工品의 新羅 移入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⁴³⁾ 또한 新羅에서 발견되는 大部分의 鐵鼎이 뚜껑대용으로 鉢形器臺의 受付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것이 新羅에서의 製作이 용이하지 않았던 물건임을 逆說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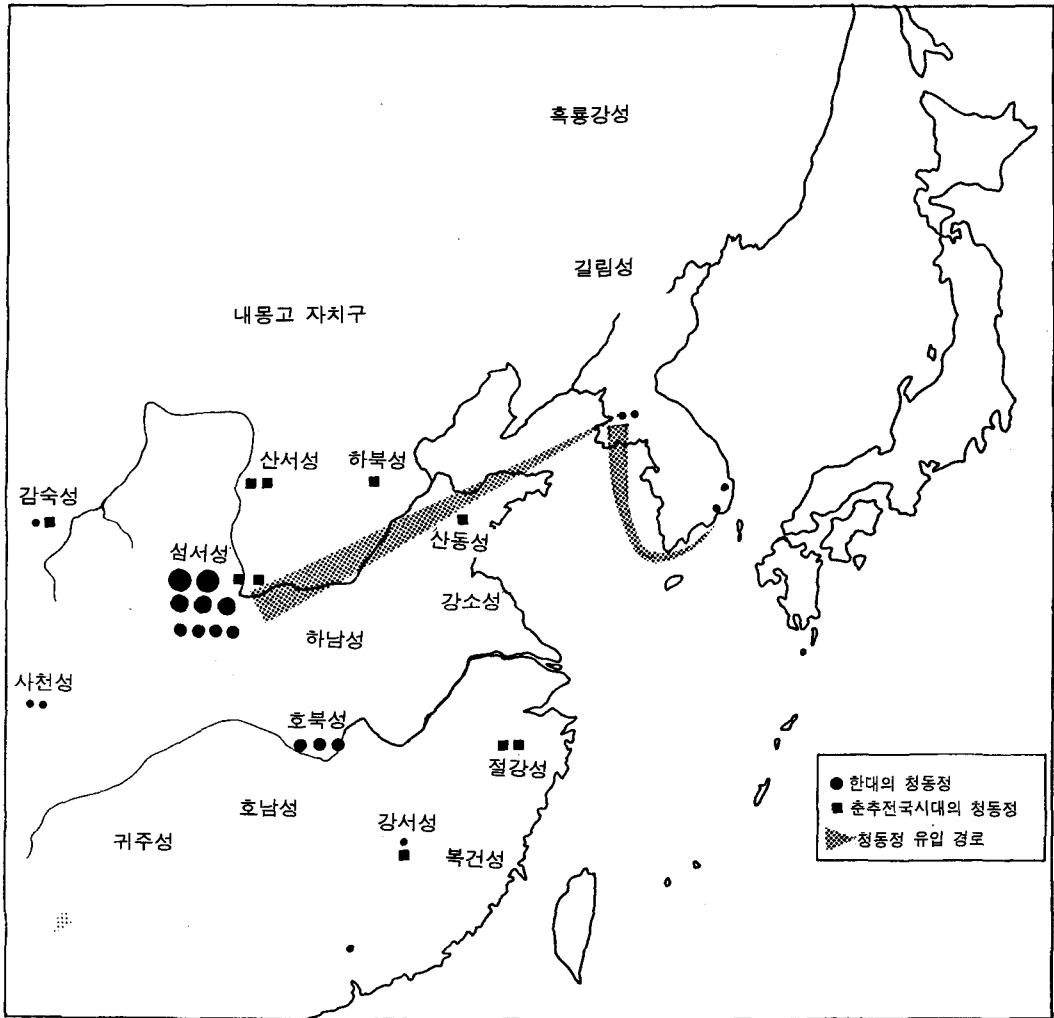


삼도 28. 한국식 청동정의 시기별 변화 양상

43) 崔鍾圭, 1983. 「中期古墳의 性格에 대한 약간의 考察」, 『釜山大史學』(釜山大學校史學會) 7.

7. 漢代 靑銅鼎의 製作中心地와 한반도로의 이입

中國에서 春秋戰國時代와 漢代의 靑銅鼎 主 分布地를 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春秋戰國時代의 경우 靑銅鼎의 分布地는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침없이 대개 春秋戰國의 疆域과 비슷한 boundary를 보이면서 출토되고 있다. 이는 春秋戰國時代의 경우 수많은 列國이 패왕이 되기위해 勢力을 爭霸하던 時期이므로 각 王朝의 正統성과 권위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들 靑銅鼎을 곳곳에서 제작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삼도 29. 청동정 주요출토지와 한반도로의 이입 (전국-한대)

이러한 靑銅鼎의 분포는 漢代가 되면서 그 樣相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靑銅鼎 出土에 있어 심한 不均衡이 發生한다는 것이다. 즉 陝西省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靑銅鼎이 出土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물론 이 時期 靑銅鼎의 경우도 漢代의 강역과 비슷한 出土樣相을 보이나 出土量的인 면에서 陝西省이 다른 곳에 비하여 優越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陝西省에는 長安市가 위치하며 長安은 前漢代의 首都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前漢前期에 流行하는 Bcla류의 靑銅鼎은 대부분 陝西省에서 出土되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반대로 後漢의 首都인 洛陽에서는 그다지 많은 漢代의 靑銅鼎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靑銅鼎의 사용이 後漢代가 되면서 거의 消滅한다는 사실을 傍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殷·周時代를 시작으로 春秋戰國時代를 지나면서 화려한 裝飾의 A類 靑銅鼎이 사라지는 것은 張光直도 지적하였듯이 靑銅鼎이 가지는 社會的 意味가 쇠퇴해간 이유로 보이며, 前漢代 前·中期를 거치면서 일부 採用되었던 Bala類 등의 靑銅鼎등도 中期를 거치면서 차츰 衰退해가는 樣相을 보인다.

즉 漢代에 있어 靑銅鼎 生産·使用의 中心地는 前漢의 首都인 陝西省의 長安이다. 또한 典型的인 前漢鼎의 境遇 製作地는 陝西省으로 보여지며 주변에서 一部 발견되는 靑銅鼎은 前漢의 首都 長安에서 入手한 것으로 판단된다.

平壤에서 確認되는 前漢式의 靑銅鼎도 前漢의 首都인 陝西省에서 流入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의 流入經路는 沿岸海路를 통해서 일 가능성이 많다.

평양부근에서 확인되는 靑銅鼎의 경우 最古式은 정백동 8호 出土의 것으로 이는 전형적인 前漢前期의 形式으로 그 上限은 戰國時代 後期로 거슬러 올라 갈 수도 있다. 그러나 春秋戰國時代 各 皇室의 神物로 사용되었던 靑銅鼎이 衛滿朝鮮으로 이입되었을 蓋然性은 相對的으로 빈약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무래도 靑銅鼎이 가지는 社會·政治的인 位相이 약화되는 漢代에 移入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8. 하대와 양동리 출토 鼎의 性格

1) 下垈 23號 出土 鼎

下垈23호 木槨墓에서 出土된 靑銅鼎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前漢代에 流行하는 形式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몇가지 점에서는 이질적인 요소가 확인된다. 가장 異質的인 要素는 胴體에 남아있는 수많은 鑄物固定痕이다. 이는 앞에서 확인하여본 大部分의 中國鼎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特性이다. 中國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殷·周時代를 거치면서 靑銅容器的 鑄造技術이 完成되므로 대부분의 靑銅鼎의 경우 鑄物固定痕을 남기지 않는다.

異質의인 要所의 또하나는 귀의 형태가 유난히 길다는 것이다. 물론 中國의 경우 圖面21의 ⑭ 靑銅鼎의 경우 뚜껑이 없다면 전체적인 胴體의 크기에 비하여 귀의 길이가 길어보일 것이나 下岱출토의 靑銅鼎만큼 긴 것은 아니다. 또한 靑銅鼎의 크기에 있어서도 다른 자료에 비해 大形임을 알 수 있다. 전체높이가 50cm에 이르는 것은 中國과 韓半島에서 出土된 同一 形式의 資料 中에서는 찾기가 힘들다.

이상이 下岱23호 靑銅鼎의 異質의인 要所이다. 물론 이러한 異質의인 要所가 확인됨에도 이를 移入靑銅器라고 보는 이유는 이의 전체적인 특성이 韓國式 靑銅鼎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 確認되고 여러 가지 속성이 中國鼎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下岱 23호 出土鼎은 기본적으로 中國에 있어 漢 代의 靑銅鼎으로 판단되나 漢의 首都 長安 즉 이 시기 靑銅鼎 製作의 中心地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제작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⁴⁾ 따라서 下岱 출토 靑銅鼎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보았으나 靑銅鼎 中에서는 직접 비교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대신 廣州漢墓에서 출토된 靑銅器 中에서 前漢 前期로 編年되는 1172號 墓에서 出土된 靑銅洗가 주목된다. 즉 이 靑銅洗의 동체에서는 下岱23호 靑銅鼎과 같은 주물고정흔이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靑銅容器的 胴體에서 이러한 鑄物痕이 확인되는 것으로는 日本 對馬島에서 출토되어 현재 東京博物館 東洋室에 展示되어 있는 靑銅釜를 들 수 있다.⁴⁵⁾ 물론 이 유물의 주물고정흔은 鐵이라는 것이 下岱나 광주한묘의 資料와는 구분되는 것이나 製作 方法狀 동일한 技術上의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日本에서는 흔히 이를 韓國에서 輸入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韓國에서는 이와 비교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역시 이를 中國遺物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삽도 30. 대마도 출토 청동부

廣州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中國南部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로 前漢의 首都 長安과는 공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좀더 확실한 자료가 확인될 까지

44) 下岱出土 靑銅鼎이 中原에서 製作된 것이 아니고 中國의 변두리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全玉年 선생으로부터 들은 일이 있다.

45) 大阪府弥生文化博物館, 1991. 「朝鮮系の 文物, 弥生文化」, 『日本文化의 源流』, 이 靑銅釜는 東京博物館에서 實見하였다.

는 下岱出土의 靑銅鼎은 中國의 南部 廣州부근에서 製作되어진 것이 일정한 방법을 통해 韓半島의 南部地方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싶으며 對馬島 出土의 靑銅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는 유물로 판단하고 싶다.

2) 良東里 出土 靑銅鼎

良東里 출토鼎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전형적인 戰國末-前漢初로 비정되어지는 遺物로서 胴體에 새겨진 名汶으로 보아 前漢 前期에 製作되어진 遺物로 판단된다. 아직 명확하지는 않으나 鼎에 새겨져서 確認되는 글자는 아래와 같다.

西口官鼎, 容一升弁重十七斤七兩七.

이중 앞의 西口와 뒤의 글씨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西口宮이란 鼎이 사용되던 곳을 가리키는데 中國에서도 西口宮이란 곳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谷口宮이라는 곳이 陝西省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長安의 근처이다.⁴⁶⁾ 容 이하의 銘文은 정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으로 中國에서 사용하는 度量衡이다. 아직 良東里의 銘文이 확실하게 판독된 상태는 아니지만 글자체나 명문을 새기는 方法, 그리고 鼎의 형태에 있어서 長安의 근처에서 주로 출토되는 것과 흡사하다. 명문이 확실하게 판독되어지면 좀 더 명확해 지겠지만 일단 이러한 이유로 良東里 출토의 鼎은 일단 前漢前期에 長安의 근처에서 제작되어져서 일정한 시기에 韓半島의 南部地方으로 이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의 국제관계로 보아 일단 낙랑을 거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다. 良東里로의 이입시기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단 그 上限이 樂浪의 設置年代인 BC 108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9. 맺음말

이상으로 韓半島에서 出土된 靑銅鼎을 중국자료와 비교를 통하여 개략적이거나 그 성격을 파악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半島에서 출토되는 靑銅鼎은 전부가 中國 漢代의 것이 아니다. 靑銅鼎은 크게 三 韓·樂浪代에 中國에서 移入된 것과 三國時代 高句麗에서 제작되어진 것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韓半島에서 출토된 靑銅鼎을 그 계보에 따라 각각 中國鼎과 韓國式鼎으로 명명하고자 하며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뚜껑고리의 形態와 口緣段의 형태에 있다.

셋째, 中國產 移入 靑銅鼎은 주로 西北地方과 南部地方의 土壙木槨墓에서 발견되는데 이들 遺物은 대개 中國에 있어 戰國時代 末에서 前漢 中期까지 流行하던 形式이 대부분이다.

46) 朱掇元·李城錚, 1983. 「西安東郊三居村 西漢墓」, 『考古與文物』(双月刊).

넷째, 移入 靑銅鼎은 形式的으로는 戰國時代末까지도 遡及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 遺物의 개별적인 埋藏시기는 事實상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 移入靑銅器 中에서 가장 古式은 正北洞 8號에서 出土된 것이며 良東里, 下岱의 靑銅鼎도 古式의 鼎에 속한다. 가장 늦은 形式의 鼎은 樂浪郡治址에서 出土된 遺物이다.

다섯째 韓國式 靑銅鼎은 대개 高句麗에서 製作된 것이 新羅로 移入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가장 古式의 鼎은 鎭城산과 烏山에서 出土된 高句麗의 鼎이며 黃南대총의 鼎도 古式에 속한다. 天馬塚의 鼎은 肩部에 鎭선이 형성되는 것으로 靑銅鼎 中 後行하는 形式이며 肩부에 鎭선이 있고 素材가 鐵인 靑銅鼎이 가장 늦은 形式의 鼎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下岱출토의 靑銅鼎은 기본적으로 前漢 前-中期의 靑銅鼎과 비슷한 형태이나 몇몇의 이질적인 요소에 의해, 이 時期 靑銅鼎 製作의 중심지인 陝西省의 長安에서 제작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廣州漢墓 出土 靑銅洗와 제작기법에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中國 南部地方에서 제작된 물건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良東里에서 확인된 靑銅鼎은 전형적인 中國鼎으로 前漢代의 靑銅鼎 製作의 中心地인 陝西省의 長安으로부터 移入된 遺物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靑銅鼎을 包含한 外來系遺物에서 흔히 이야기 되는 傳世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分析對象이 된 資料가 鼎에 국한 되었기 때문이며 限界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 靑銅鏡·漆器나 貨幣等 製作年代가 확인되는 遺物들을 좀 더 폭넓게 檢討하여 다루고자 한다.